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머니 태에 있기 전 창세부터 우리를 택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전파에 열정을 다하는 모든 그리스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니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라다 시편 148편 11-13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3월 31일 (토) 제 167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재정 도움 받고 선교 꿈나무 양성

## CT, 크리스천 고교들 유학생 입학시켜 일석이조 보도

휘튼 아카데미는 그 165년 역사의 대부분이 기숙학교(boarding school)였다. 1980년대에 폐지됐던 이 학교의 기숙 시스템이 2006년 가정 홈스테이 방식으로 다시 도입됐다.

“마침 중국이 1, 2년 전에 학생 비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복지 및 교무 담당 교감 브렌다 비스하노프가 말했다. 유학생을 받은 첫해에 시카고 인근에 있는 이 기독교 고등학교에는 외국인 학생이 2명뿐이었다. 한 명은 중국 유학생, 다른 한 명은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유학생이었다. 최근 들어 이 학교의 유학생 수는 8명에서 16명으로, 그리고 다시 3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금방 휘튼 아카데미는 유학생 수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유학생들을 다른 기독교 학교들에 배치하기 위한 네트워크(WAnet)를 만들었다. 그 유학생의 대부분-올해 입학한 유학생 60명 가운데 45명 포함-이 중국 출신이다.

이 같은 성장이 전국적인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교육연구소(IIE)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16년 사이에 외국인 고등학생 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도 유학생의 거의 3/4이

F-1 비자(졸업 때까지 유효)로 입학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다(58%).

경쟁이 치열한 자국 교육 제도에 환멸을 느낀 중국인들이 자녀를 미국에 보낸다고 비스하노프는 말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녀를 미국에 있는 대학에 보낼 여력이 생긴 부모가 더욱 많아졌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면 대학 진학이 더 용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녀를 더 일찍 유학 보내기 시작했다.

따라서 미국내 사립 크리스천 고등학교들에게 유학생들은 이 땅과 천국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일단 흔들리는 재정 기반에서 학교 운영을 위한 자금이 유입되며, 특히 크리스천 가치에 따른 교육은, 중국 선교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Why Christian High Schools Are Filling with Heavly Students: Foreign students offer US schools treasure in heaven and on earth).



중국어로도 소개되고 있는 WAnet 웹사이트, 여름 영어학교에 참가한 유학생들

학교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교사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여러 면에서 자기네와 다른 유학생들을 환대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인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고, 그리고 유학생들이 항수병에 걸리거나 문화충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홈스테이 가정들도 관리해야 한다.

휘튼 아카데미는 미국인 학생들에게는 약 1만7000달러의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는다. 유학생들에게 받는 등록금과 수업료와 홈스테이 비용은 거의 5만 달러다. “WAnet”의 11개 학교는 유학생들에게 3만

4000-5만 달러를 받는다.

예산이 빠듯한 크리스천 학교들로서는 이 돈은 큰 도움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돈의 상당 부분은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써야 한다고 학교 측은 말한다. 처음에는 돈이 먼저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서서히 알게 된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유학생들이 학교의 문화를 바꾸기도 한다.

<3면으로 계속>



## 강점에 집중하고 약점을 개발하라

### 리더십저널, 달라스신학교 크리스천리더십센터 대표 앤드류 사이델의 성품개발 원리 소개

연사이자 강연자이며 베스트셀러 저자인 케빈 캐쉬맨(Kevin Cashman)은 “리더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 빛을 비추거나 혹은 어두움을 드리울 수 있다. 의식적으로 자기 인식에 집중하면 할수록, 리더들은 더 많은 빛을 비출 수 있다. 반면에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더 많은 어두움을 드리우게 된다”고 말한다.

리더는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성품 개발을 통해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한계와 결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자신을 연단할 때,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리더의 강점, 약점, 한계, 결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 1. 강점

강점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독특하고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우리의 강점은 영적 은사나 타고난 재능 안에서 발견된다.

#### 2. 약점

약점은 어떤 이유로 우리 안에 아직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인식되지 못한 영적 은사들이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재능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약점은 적절하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강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

#### 3. 한계

한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말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잘 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한계를 인정할 때 강점과 약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p>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p> <p>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케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p>	<p>ATS 정회원</p> <p>월드선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p> <p>www.wmu.edu</p>
---	--

월드선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온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inkenhoff Terrace Palisades Park, NY 07650

핸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qospel@mail@hotmail.com



시론 김봉운 목사 2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운석 목사 8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13면

#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제39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USA

진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금년 총회는 우리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한바 총대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회 일시: 주후 2018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3박4일)
- 총회 장소: Kensington Resort Hotel (684 leodo-ro, Seogwipo Jeju-do, South Korea (Tel 82-64-739-9001))
- 숙 식 비: 총회 기간동안의 숙박비와 식사비 그리고 관광비는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제공합니다.
- 디 파 짓: 호텔 예약관계로 1인당 \$100.00 디파짓을 하셔야 합니다. (\$100.00은 총회 참석 당일날 돌려 드립니다) Bank: Bank of Hope Wire- Pay to the Order: KPCUSA Account Number: 6400323826 Mail- Pay to the Order: KPCUSA Rev. Inseok Shin Address: 1046 4th Ave, Los Angeles, CA 90019
- 교통 안내: 제주공항에 4월 17일 오전에 도착하시면 차량으로 호텔까지 영접합니다. 4월 20일 오후에 돌아가게 예약하시면 제주공항까지 환송합니다.
- 접 수: 첫째날(4월17일) 접수는 오후3시부터, 저녁식사는 오후6시부터, 개회예배는 오후8시에 드립니다.
- 기 타: 문의사항이나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 문 의

준비위원장  
한선희 목사 (323-823-0691)  
craaha@gmail.com

준비위서기  
정중섭 목사 (714-380-0707)  
j2ksup@naver.com

준비위회계  
신인석 목사 (626-975-1248)  
arcadiashin@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 합 동 총 회

총회장 : 조 환 목사  
39회 총회준비위원장 : 한선희 목사

서 기 : 정중섭 목사  
서 기 : 정중섭 목사



# 공동체를 통해 '고독' 을 치유하라!

## 컨버세이션, 엠러레스트 워슬리 교수, 역사적 접근 통한 문제와 치유방법 소개

고독, 외로움이란 현대에 와서 생긴 문제일까? 미국 의무감을 지낸 비백 머시는 자신이 평생 의사로 일하며 맞닥뜨린 가장 흔한 병은 심장병도, 당뇨도 아니라 외로움이었다고 말한다. 만성적인 고독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비만보다 오히려 사람에게 치명적인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 고독은 이제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주목해 다루는 문제가 됐다. 전염병처럼 다뤄지기도 할 정도다. 사람들은 고독의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낭만주의 시대 시인들이 고독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책으로 쓰려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사실 고독이라는 개념이 그리 오래되

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한때는 고독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다만 고독 혹은 외로움이 뜻하는 바가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바뀌면서 해결책을 찾기도 훨씬 어려워졌다.

엠러레스트 대학 영문학교수인 아멜리 S. 워슬리(Amelia S. Worsley)는 역사 안에서 고독의 어원부터 살펴보고, 그 뜻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현대적인 의미의 외로움과 우리가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A history of loneliness).



### 시론

## 실천이 없는 말과 지식



**김봉운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말로 "me too"를 꼽습니다. 이 말은 본래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던 것인데 지금은 과거에 자신이 겪은 아픔을 드러내면서 쓰는 부정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동의한다, 함께 한다"는 생산적인 말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옳지 않은 과거를 고발하는 파괴적인 힘을 가진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힘을 받아서 연에게 예술계 학계 정치계 등으로 퍼져 위선을 행한 그들이 몸담은 기관과 단체들의 대한 인상을 나쁘게 만들고 사회 전체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남들이 모르는 일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속히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라 전체가 각성하므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위선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게 보면 신앙생활은 이러한 위선적인 욕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사도 바울도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라고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위선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다룬 부분이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2장 후반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신자들과 교회의 위선이라는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위선이 무엇일까요?

첫째, 말만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15-17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얼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고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고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임으로 만의 봉사과 구제가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경고하며 "여러분, 자랑삼아 일하거나 돕지 마십시오.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굶주림이며 저 아픈 이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 2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에 섬기고 있는 교회 강단에서만도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한 말을 제 자신이 다 실천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애를 썼지만 결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도 "말만 하는 사람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듣지 않도록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뵈니다."라고 또 다른 면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는 귀신은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지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행하지 않고 임으로만 믿는 것도 위선이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지식적인 믿음도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며 책망하신 것은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위선인가를 절감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은 성경공부, 제자훈련, 각종 세미나, 홍수 같은 설교들을 들으며 고도의 성경지식을 쌓고 있는 반면 교회가 가장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낚시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송어 낚시를 잘 하는 노인에게 그 비결은 물었다니 네 가지 비결(1. 한눈팔지 말 것 2. 미끼를 잘 사용할 것 3.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 4. 적당한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하였는데 그것은 "그대로 실천하라"라고 합니다. 아무리 비결을 잘 알고 암송하면 뭐합니까? 막상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한 지식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나무요 시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me too"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me too"를 부활시키는 일에 힘을 모아 복음의 계절이 다시 오기를 기도하며 헌신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말한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pwkim529@gmail.com

### 외로움, 그 위험천만한 이름

아주 먼 옛날부터 우주 어디에나 있었을 것 같은 외로움이라는 개념은 사실 16세기 말에 처음 등장한다. 사실 그때 등장한 외로움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오는 위협의 신호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근대 영국 초기 사람들은 사



돌아와 공동체에 속해 살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외로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이를 치유하기란 너무나 어려워졌다. 심지어 사람이 넘쳐나는 활기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외로움이 가득하다보니, 이웃을 사귀고 친구를 가까이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됐다.

현대적 의미의 외로움이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과 거리

## 물리적 고립의 다른 이름이었던 외로움, 세월 흐르며 뜻 바뀌어 책 읽는 것도 치유의 한 방법...공동체에 손 내밀 때 해결 가능

회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는 것을 사회가 제공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외딴곳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행여 그 사람이 당신을 해하려 할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고, 그래서 인적 없는 숲이나 산골짜기는 두려운 곳이었다.

설교에 등장하는 지옥이나 무덤, 사막 같은 곳이 두려운 이유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외로움 때문이었다. 외로움과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상기시켜 교회 지도자들은 신도들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설교했다.

그러나 17세기에도 "외로움(loneliness)"이나 "고독한(lonely)" 같은 단어가 쓰인 기록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박물학자였던 존 레이가 1674년 흔히 쓰이지 않는 용어를 총정리 했는데, 여기에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단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았다.

"이웃에서 멀리 떨어진 곳, 혹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

존 밀턴이 1667년 발표한 서사시 "실낙원" 속의 악마는 아마도 영국 문학작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첫 번째 등장인물

일 것이다. 에덴동산에 있는 이브를 유혹하기 위해 길을 떠나려는 악마는 자기가 사는 지옥을 벗어나 "외로움 걸음걸음"을 내딛게 된다. 밀턴은 구체적으로 악마가 어떻게 느꼈는지 묘사하거나 서술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악마가 내딛던 지옥과 에덴동산 사이에 있는 궁극의 황야가 지금껏 그 어떤 천사도 발을 밟아본 적 없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위태롭다고 하는 악마의 말 속에 외로움이 물씬 묻어난다.

현대적 의미의 외로움과 딜레마

오늘날 황야는 홀로 남겨지기 두려운 곳이라기보다는 자연을 탐험하며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됐다. 대신 외로움의 문제는 도시로 옮겨 새로 파리를 틀었다.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사람 많은 복잡복잡한 곳에 살고 친한 사람을 가까이 불러 모았다. 그러나 1인 가정의 숫자는 급증했고, (전통적 의미의)

가족은 곳곳에서 해체됐으며, 공동체도 무너졌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고독과 싸우는 일은 정부의 과제라고 선포하고 아예 오로지 이 문제만을 전담하는 장관직을 신설해 각료를 임명했다. 지난 1월의 일이다. 기금을 모아 좋은 일에 쓰겠다는 자선단체 가운데 "외로움에 맞서 싸우자"는 구호를 내세우는 곳도 있다.

문제는 외로움을 치유하거나 외로움과 맞서 싸우자는 캠페인이 대체로 오늘날 외로움이 갖는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데 있다.

고독의 개념이 인적이 뜬한 도시 밖, 사회의 울타리 밖으로 국한됐던 17세기만 해도 그 해결책은 간단했다. 다시 사회에

를 뒤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다른 이들과 가까이할 수 없다는 감정이나 심리 상태다. 실제로 다른 사람과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사는 사람도, 심지어 친한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워서 힘들어한다. 이제 인적이 뜬한 황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마음속 황량함을 채우는 법

오늘날 고독과 외로움이 정말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4면으로 계속)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b> ■ 편집국장: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865-0009(대 표) (323)865-9025(광고국) • Fax:(323)865-0056(편집국) (323)8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hpress@gmail.com

# 2018 TVNEXT TRUTH FORUM

## Gospel and Culture; Find Your True Identity

April 13, 7:30 pm (Fri) **주님의 영광 교회**  
 April 14, 1pm (sat)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Register Online ASAP!  
<https://goo.gl/6P2UMx>

**Dr. Bill Jeynes**  
Apologetics on culture, biblical worldview and on practical life application.

**Kevin McGary**  
'Just Justly Justice'  
False Justice vs True Justice

**Tracey Bickle**  
How to uproot and stay free from addiction and bitterness.

**Dr. Michael Brown**  
Radio host, The Line of Fire  
Author, professor

**Guest Speaker**  
Real Options  
"Real Talk!"

**Pastor Anna Park** tvnext.org@gmail.com

우리 다음세대들이 혼탁해지는 세상에서 주의 용사가 되어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무장시킬 Truth Forum 에 여러분의 영여권 자녀, 리더, 사역자님들을 초청합니다!

주제: **Gospel and Culture; Find Your True Identity.**  
복음 과 문화 -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라!

말씀: Rom. 12:2 & Colossian 2:6-8 롬 12:2, 골 2:6-8

언제: **Friday, April 6th @ 7:30pm & Saturday, April 7th @ 1:00pm (San Jose, CA)**  
**Friday, April 13th @ 7:30pm & Saturday, April 14th @ 1:00pm (Los Angeles, CA)**

어디: **Venture Christian Church**  
16845 Hicks Road, Los Gatos, CA 95032 (San Jose, CA)  
**주님의 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Los Angeles, CA)

주최: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Tvnex)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단체

등록 문의 및 홍보자료:  
Anna Park 전도사 - tvnext.org@gmail.com



### 재정 도움 받고 선교 꿈나무 양성

(1면에서 계속)  
 “비교종교 수업 시간에,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개인적인 또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불교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정치 또는 역사 수업 시간에는 이 아이들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성장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풍부한 수업이 되지요.” 아이오와에 있는 펠라 기독교 고등학교 교사인 트릭사나 왕의 말이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기독교 가정에서 하숙을 하고, 그리고 종종 주말에 교회에 간다는 점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된다.  
 펠라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해마다 세례식을 가졌다. 휘튼 아카데미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학생들이 생기고 있다.  
 비스하노프는 “우리는 종종 그 부모들에게 자녀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말한다”며 “아이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부모의 허락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가 종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상당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고등학생들을 돌보게 된 것은 “기독교 학교들이 10년 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방



식으로 그들의 사명을 확장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라고 뉴저지에 있는 이스턴 기독교 학교의 최고교육책임자인 루스 쿠더는 말했다.  
 기독교 학교가 유학생들을 섬길 때, 그들은 또한 그들의 가정

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 앞에 있는 그 학생들을 넘어서는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위험에 빠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14년부터 유학생 증가율이 8%(2014)에서 3%(2015), 그리고 다시 1%(2016)로 떨어졌다.  
 이렇게 된 데는 중국이 자국

내 대학교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과 중국 경제의 느린 성장세에 일부 원인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적 환경과 물리적 안정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미국 유학을 망설이는 것이라

는 말을 학교 측은 듣고 있다.  
 미국이 이전처럼 이민자들에게 개방적이지 않다는 점과 또 다른 염려는 총기난사 사건이다. 살인율이 높은 도시 시카고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휘튼 아카데미는 그 학교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앞으로 5년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WAnet 디렉터 벤저민 엘루어는 말한다. 호주와 영국과 캐나다도 많은 수의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했다. 그렇지만 누구도 지난 5-10년을 예측하지 못했다.  
 2000년대 초에는 전체 기독교 고등학교의 총 유학생 수는 수천명 정도였지만 현재 전체 사립학교에는 7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있다. 처음에, 혹은 몇 년 뒤에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는 기독교 학교에 공부하기 위해 온 학생들 때문에 세상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해 보자.

##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 주변사람들(상)

사람은 단독자일 수 없다. 아담을 위해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창세기 2장 18절에 나타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뜻한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방정식이다.  
 예수님 주변에는 열두 제자가 있었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다. 바울 주변에는 디모데, 누가, 마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알렉산더도 있었다. 목사 주변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셋으로 나뉜다. 긍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에 비해 숫자가 적다. 그러나 묵회 과정과 진행에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고 활력소를 제공해 준다. 그들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 그러나 그런 저런 이유로 그들만을 편애하거나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 균형 잡힌 관계 형성

고 이상근 목사가님 대구제일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때 부흥사경회 강사로 초청받아 집회 중 시무장로님의 저녁 식사 초대와 있었다. 옛일이어서 그 장로님 얼굴도 이름도 기억에 없다. 그러나 지금도 생생한 것은 장로님에 대한 이 목사의 소개말이다. “아무게 장로님은 30년을 한결같이 저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긍정의 힘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내일을 향한 보폭을 활기차게 한다. 그뿐인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분도 좋고 목양 열정도 되살아난다. 그들이 목회자를 돕는 것도 다양하다. 말로, 격려와 위로로, 물질로, 기도로.... 필자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넘쳤다. 지금 돌이켜 보아도 감사하고 감동의 파장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즐기는 사람들, 편지를 걸고 팔소매를 붙잡는 사람들, 뒷전에서 이 말 저 말 내는 사람들, 패거리를 만들고 여론몰이로 판을 흔드는 사람들. 이것은 필자가 섬긴 총신교회 이야기이기보다는 한국교회 이곳저곳을 넘나드는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 대형, 중형, 소형교회 가릴 것 없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돌출되고 터지고 있다.  
 교단들도 예외가 아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국가가 간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국가 위기의 원인제공자가 되어 국난을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엔 언제나 문제가 있고 교회 역시 문제 속을 헤집고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더 이상 교회의 부정적 현상이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도를 넘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인은 교인일 뿐 천사 집단은, 그렇다고 마귀 집단은 아니다. 교인은 믿어야 하는 대상이고 믿기 힘든 대상이기도 하다. 하루아침에 얼굴빛이 달라지고 소리가 변하고 마음가짐이 변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된다. 너무 가까우면 속이 들여다보이고 너무 멀면 관계 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균형이 필요하다.

#### 여러 성향의 교인들

교인들의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다. 할 일 없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일거리를 찾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만들고 일으킬 수 있다. 밖으로 나도는 사람들. 목사가 교회 일을 제쳐 둔 채 총회, 연합기구 등을 기웃거리고 맴도는 사람들, 365일 부흥회 강사로 교회를 비우는 사람들, 이들의 목회는 탄탄해질 수 없다. 말만 잘하는 사람들.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지만 모든 걸 말로 대신하는 사람들, 그들은 신뢰하기가 힘들다.

iamcspark@hanmail.net

[알림] 정기휴간에 따라 다음 한주는 쉽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 강점에 집중하고 약점을 개발하라

(1면에서 계속)  
 4. 결점  
 인간은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다. 결점은 한계보다 좀 더 심각한 것으로,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생과 사역을 망칠 수도 있다. 성품적인 결점은 일반적으로 우리 내면 중심에서 은밀하게 약한 부분을 만들어 가고, 잠복되어 있다가 일상생활이나 사역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건드리면 도덕적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  
 자신을 돌아보고 강점과 약점, 한계와 결점 대해 인식했다면,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시행해야 한다.  
 첫째, 여러분의 강점에 집중한다. 여러분의 강점을 개발하고 연마하고 표현하라.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강점을 활용하는 데 사용한다. 여러분이 강점을 가진 영역에서 일할 때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여러분의 약점을 개발해야 한다. 여러분이 약한 영역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주요 시간을 투자하지는 말라. 지극히 한정적인

다.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  
 셋째, 여러분의 한계를 보완할 사람을 두기 바란다. 여러분이 결코 잘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본다. 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하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넷째, 여러분의 결점을 드러내 적절히 대처하기 바란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결점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격적 결함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다루어야만 한

다.  
 위 네 가지 중에 결점을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리더의 결점은 성품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점을 보완하여 성품 개발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결점을 알아야 한다. 결

점 문제도 다가오기 전에 인식하고 정직하게 대하기 바란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부인하거나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결점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반응에서 자라난 결점은 주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바란다. 주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덮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점이 나타날 때 주님께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란다.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해외총회 제40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Overseas(Hap-Dong)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각 노회와 본 총회 총대원 여러분 배후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총회 소집을 공고하오니 성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 제: “여호와를 앙망하자”(사 40:31)
- 일 시: 주후 2018년 5월 21일(월) 오후 4시 - 23일(수) 12:00 까지
- 장 소: 주 예수 사랑 교회(강유남 목사 시무)  
1155 Hendricks Cswy Ridgefield NJ 07657  
(551)655-4224, (201)705-8496
- 숙 소: 총회장소 인접 힐튼호텔 (Hilton Hotel)

- 참 고: (1) 각 노회 총대는 총회전까지 명단과 현의 건을 보내주심 바랍니다.  
(2) 회비 \$100, 부부동반 \$150  
(3) 숙식은 총회에서 부담하며 숙소는 도착 순으로 배정함
- 유의사항: 기착공항은 New Jersey주, New Wark Airport 로 하시고 도착시간을 알려주시면 안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연 락 처: Tel.(551)655-4224, Tel(718)757-2379

주후 2018년 3월 31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Overseas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총회장 이재영 목사 서기 정대영 목사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클래식 음악의 수도사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을 때 세상은 편안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대의 힘이 요구되었다. 오현제 중 한 사람인 하드리아누스(Hadrianus 76-138) 황제 시에 로마의 한 군단의 병력은 6,831명이었다. 이 숫자에 비견되는 보조군이 또 있었다. 고로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후임 황제들이 유지했던 평화의 질서는 이런 잘 훈련된 군단 30부대 이상이 모여서 이루어낸 평화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로마에는 37만 5,000명의 상비군이 있었던 것이다. 그 상비군을 통한 힘의 평화가 결국 파스르마나

다. 고로 모든 인생들은 너나없이 힘을 갖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 힘은 지식, 물질, 권세, 인기 또는 여자에게는 아름다움일 수 있다. 목회자들에게도 비슷한다. 그것은 모이는 성도의 수로 여긴다. 그런데 힘의 대상을 얻는 일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다. 1% 미만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아주 희귀한 것이다. 그것을 손에 쥌 자야말로 수많은 경쟁을 통해 승리한 사람들이다. 고로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놀라운 스토리를 가진다. 그것은 보통 사람이 범접하

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 정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다. 그리고 성공의 내용을 무기화 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 무기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니면 연약한 여인들을 상대로 성적 도구로 삼기도 하고... 요즈음에 미 투(Me Too) 운동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참으로 이런 일에 나는 깨끗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다. 이 세상은 본래 음란한 곳임을 주님께서 전명하셨기 때문이다. 다만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는 그런 일에 전혀 상관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 자들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둘러선 군중들은 모두 자리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던 것이 음란한 세상의 본질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 투로 순식간에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보게 된다. 대단한 실력자들이 곤두박질하는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깝다. 옆에서 보아도 안타까운데

가족들이나 친지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싶다. 얼마 전 정명훈 선생이 지휘하는 밀라노의 스칼라를 관람했다. 베르디가 그 어떤 오페라보다 심혈을 기울여 작곡했다는 시몬 보카네그라다. 무려 25년 동안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고치고 또 고쳐 만든 작품이다. 그 작품은 제노바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썼다고 한다. 무대의 화려함과 고뇌하는 주인공의 심리적 묘사는 과연 압권이지 싶다. 좋은 자리를 배려해 주었는데, 내가 앉은 자리에 그 유명한 마리 아칼라스도 앉았겠지 라고 생각하니 흥분이 된다. 오나시스도 관람했을 것이고, 그 유명한 카루소도 이곳 어딘가에서 몇 번쯤은 관람했을 것이고. 세계 정상들의 연주자들의 실력은 대단하다 싶다. 스칼라의 명성에 걸맞게 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인으로 구라과 최고의 무대 중 하나인 스칼라를 지휘하는 정명훈 선생은 참으로 대단하다 싶다. 그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그는 이제 최고의 지휘자가 되어 하고 싶은 연주, 서고 싶은 극장을 맘껏 선택하여 지휘할 수 있는 힘 있는 연주자가 되었다.

그러니 그에게는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유혹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대체로 연주자들은 외모가 예쁘고 대단한 미인들이 많다. 무대 예술이기에 청중을 즐겁게 하려면 미모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휘자는 자신의 의지로 연주자들을 무대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무대의 최고 권력자일 수 있다. 고로 지휘자와 오페라 가수와의 관계는 얼마든지 핑크빛으로 채색되기 쉽다. 이런 일은 모든 무대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그런데 정 선생의 음악철학은 남다르다. 그는 말하기를 음악의 생명은 감동에 있다고 한다. 아무리 지휘자가 턱시도를 멋지게 입고 아름다운 품으로 손을 흔들며 지휘한다고 해서 감동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음악에서의 감동은 평소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즉 평소의 삶이 음악 앞에 진실 되고 바른 삶이어야 음악에서도 그 진실이 감동으로 배어나올 수 있다고 한다. 지휘자 중에 수많은 염문을 피우고 지휘할 때는 멋지게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지휘자는 사기꾼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유는 청중을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

에... 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가. 그래서 나는 그를 클래식 음악의 수도사라고 칭한다. 클래식의 수도사? 그는 말한다. "아내 한 사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아내는 나로 하여금 아무 염려 없이 음악에 몰두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 데, 내가 다른 그 누구를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금언이 또 있다. "음악을 사랑하면 언젠가 그 음악이 인기를 가져다주고, 돈과 명예도 얻게 한다. 그러나 음악을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이런 진실 된 음악의 철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콧대 높은 스칼라 청중들이 정명훈 선생을 그토록 좋아하고 환영하구나 싶다. 오페라가 끝나자 청중들의 우레 같은 박수와 함께 오케스트라 전원들은 발을 구르며 지휘자에게 응원을 보낸다. 이런 환호를 바라보며 나도 손바닥이 뜨겁도록 박수를 보냈다. 주어진 힘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귀한 음악가다 싶다. 그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온다.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하경남 목사  
(브라질 서울교회)



간이 딱 맞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적당량의 소금이 행복하게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포기가 있을 때 맛이 납니다. 미숫가루 탄 것을 마시다가 기분 상할 때가 있습니다. 녹지 않고 딱딱한 미숫가루가 잔 밑에 그대로 있을 때입니다. 녹아야 맛이 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안 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50a). 또 하나는 톱 쏠는 맛이 상쾌하게 합니다. 기독교인에선 톱 쏠는 맛이 있습니다. 이 맛은 남다른 삶에서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고난 중에 활력이 넘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눈에 톱 쏠는 맛으로 느껴집니다. 톱 쏠는 맛이 우리의 맛입니다. 매일 매일 기대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나는 인생입니다.

첫째, 인정하고 포용하십시오. 그래야 맛을 잃지 않습니다(38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아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잘했죠?" 하듯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는 눈이 너무 다릅니다. 요한은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시기심을 갖고 있지

만 예수님은 귀신 들려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요한은 그저 우리만 해야 될 일을 왜 다른 사람이 해? 이게 관심이지만 예수님은 귀신 들려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불쌍한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그런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까움으로 불쌍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우리만 해야 할 일을 당신이 하니까? 경쟁심이요 시기심입니다. "항 썩 종이에선 항내 나고 생선 썩 종이에선 비린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쟁심과 시기심을 품은 마음에선 말도 시궁창에서 꺼낸 말처럼 사람을 죽이는 썩는 냄새입니다. 시기심은 내 옆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입니다. 보세요. 부자 빌 게이츠 때문에 시기심 난다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시기심은 내가 받은 은혜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시기심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을 하찮은 것으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포용하고 인정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독점할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나보다 더 잘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맛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불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작은 소자의 신앙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닌데 상 주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려 하지 않고, 죄를 불편해 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자기의 원수요 맛을 잃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어느 베테랑 산악인이 별 장비 없이 조그만 불뿌 하나만 갖고 평소 오르던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 그 산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저히 빼낼 수 없는 곳에 팔이 끼어버렸습니다. 인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던지 저체온으로 죽습니다. 할 수 없이 손에 잡힌 몽뚝한 나뭇가지로 자기 생 팔을 자르

기 시작했습니다. 마취도 없죠. 한 번에 잘라지지도 않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살려면 해야 되요. 팔을 잘라야 되요. 결국 잘랐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했어요. 방송에 나왔어요. 뚱뚱그러진 팔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살려면 팔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셨습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이 소금처럼 타닥타닥 뛰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혀를 내밀고 헐떡거리면서 '제발 물 한 방울만'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흘려보내기에 "나만 지옥 가나?" 감히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비극이 찾아오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비극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영혼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영원히 평화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희망을 버려라"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썩은 냄새가 아닌 죄를 이긴 신선한 맛이 성도의 맛입니다.

셋째,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맛입니다(50절).

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불이 아니면 분노의 불이 붙게 됩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을 치듯 합니다. 영원히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치받고 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물로 놓이게 됩니다. 거기가 지옥이고 은혜가 떨어진다 교회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화해할 때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좋은 소금이 지요. 서로 분노를 없애고 겸손하게 하는 소금입니다. 병자들에게 식염수 링거를 맞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해서 예배당을 옮길 때가 됐어요. 당회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교회를 확장하고 이전하면서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또 하나는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그런 땅과 건물이 나와도 다른 교회가 들어와 가격경쟁이 벌어진다면 양보하고 나온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 포기했어요. 두 번째 건물도 포기했어요. 세 번째 건물도 포기했어요. 입지 조건들이 다 좋은 지리였어요. 그러니 다른 교회도 사겠다고 나왔어요. 세 번째 포기한 지 6개월 후에 4번째 건물이 나왔어요. 구입했어요. 가구를 살 돈이 없었는데, 건물을 판 미국회사가 트레일러 14대 분의 가구를 운송비까지 전부 지불하고 교회에 기증했어요. 뉴욕에 있는 기업이 컴퓨터 100대 이상을 기증했구요. 개 교회 이기심으로 패배한 이 시대에 다른 교회를 살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목을 위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은 믿음입니다. 평화를 위해 내 것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교인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그 삶에 포기가 있는 사람에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항 썩 종이에선 항내 나고 생선 썩 종이에선 비린내 난다." 주님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ipscoreana@gmail.com

# “맛을 잃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9장 38-50절)

(2면에서 계속)  
어떤 문제의 실체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추상적인 관념에 머무는 때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정말 쉽지 않다. 현대적인 의미의 외로움에 맞서는 비법은 사실 그런 감정 자체를 없애버리려 애쓰지 않고, 반대로 관념적인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사는 법을 익히는 데 있다. 전혀 직관적이지 않은 해법이라는 걸 잘 안다. 하지만 그 모순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을 만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훌륭한 해결책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다른 취약 계층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고립되고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은 당연히 구조적인 원인부터 찾아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먼저 외로움이나 고독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여겨 쉬쉬하게 만드는 문화 혹은 우리 안의 편견부터 고쳐야 한다. 외로움은 질병이 아니다. 사람이 라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외로움을 느낄 만한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외로워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이 사실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외로운 사람들이 스스로 더욱 고독으로 몰아넣는 겁

데기를 깨고 나와 경험을 공유하고 외로움을 나눌 수 있다. 모두가 현대인은 고독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외로움이 만연하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사람들이 고립돼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적을 찾기 힘든 황야 같은 느낌이 그토록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 헤아리는 작업이 중요하다. 누구나 외로워하고 외로움을 겪지만, 그 양상은 저마다 다릅니다. 자신이 어떻게 외로운지, 왜 외로운 건지 설명하는 데 애를 먹는 사람도 많다.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는 다음

과 같이 썼다: "흔히들 말하는 외로움 말고 정말 발가벗겨진 기분에서 오는 두려움과 같은 진짜 외로움을 누가 과연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사무치게 외로운 이들에게조차 외로움은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긴 채 다가간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지 이해하고 배워가다 보면 콘래드가 설명한 위와 같은 상황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다. 문학작품을 읽는 것도 마음속의 고독을 조금이나마 털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외로울 때만 책을 읽으라는 법 같은 건 물론 없지

만, "프랑켄슈타인"부터 "투명인간"까지 실제로 많은 문학작품이 수없이 다양한 외로움을 다루고 있다. 등장인물이 겪는 외로움을 읽는 이가 공감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공허하지만 한 마음에 무언가 들어차 있는 것처럼 느끼기에 독서만큼 좋은 것이 없다. 책을 읽으면 또 어떻게 해야 함께 외로워할 수 있는지 배우기도 한다. 영국 낭만주의 시인들은 종종 다른 작가들의 외로움이 가득한 문장을 그대로 베껴 적으며 영감을 얻고 또 글을 쓰기도 했다. 외로움이 만연한 사회라도 우리

가 외로움을 알리고 나누려 하면 공동체가 그 외로움을 달래주러 올 것이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던 아니면 문자를 주고받던, 방법은 다양하다.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기도 하는 외로움은 이렇게 처음에는 그저 물리적인 고립의 다른 이름이었다가 세월이 흐르며 뜻이 바뀌어왔다. 시인 오션 부음이 썼듯이 "외로움도 이 세상과 함께 세월을 보내며 변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최근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잘못에 대해 판단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쪽과 형평성의 문제에서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나뉜다. 어느 쪽의 판단을 유보한 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에 대해 결과적으로 우울하고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아마도 더 복잡했으리라 짐작한다. 정의로운 분노의 마음과 그분이 신앙을 가진 장로였기에 더욱 지지하고 기도했을 어른들의 안타까운 탄식들이 어지러이 혼재되어 있음을 본다.

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법으로 드러난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대상을 보면 제한이 없음을 알게 된다. 그들이 누구인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이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던 것이다. 이 용서의 대상에는 그들 은 삼십에 팔아넘긴 가롯유다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며 용서이다. 용서가 곧 사랑이다.

**제한과 예단을 넘어서는 용서**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를 가지고 요한은 제자들을 사랑하시

그 대상의 변화와 결과에 대해 예단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한다.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능히 그럴 수 있음을 말한다. 하물며 스승을 팔아버리기까지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역설적인 교훈을 말해준다. 결론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주며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구하셨다면, 사람의 미래를 조금도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 같은 인생들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에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오히려 인생의 미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용서와 사랑을 예단하고 살아가는가?

가운데 태어났으며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은 본래 죄인이라고 선언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한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죄인을 향한 주님의 용서에 감사하며, 자신과 남을 용서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남을 용서하기를 결심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 속에 거룩한 의를 쌓아갈 따름이다. 용서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든 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안수집사입니다. 담임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성경읽기와 기도생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들을 때는 양심이 찢리며 회개하고 나의 영적 게으름을 반성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 펴서 읽으면 너무나 성경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한두 장을 다 읽지 못하고 책을 놔버립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잘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영적 방을 고칠 수 있을까요?  
-나성에서 이무성 집사

**A:** 모태신앙인들이 잘 범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지만 특별한 새로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읽어오 보링 (boaring)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빨리 책을 놔버립니다. 이것은 집사님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신자들이 잘 범하는 성경 안 읽는 병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이란 것은 떡이나 빵이나 양식을 먹어야 힘과 활력을 얻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

**성경은 영혼의 양식, 약으로 생각하고 읽어야**

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늘양식인 성경말씀을 매일 먹어야 영적 힘을 얻고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경을 펴서 그분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오래 성경을 접했지만 지식적으로 읽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겠다는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읽다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엘리야처럼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인내하며 읽어야 합니다. 재미없어 덮어버리고 싶은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그 고비를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해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저는 교회 권사님들과 식사를 하면 식사 후에 약을 한웅큼씩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왜 그런가 했지만 저도 요즘은 식사 후에 혈압약을 2개씩 먹습니다. 성경을 읽어 다 읽듯 끝까지 읽어야 단 체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먹기 싫지만 건강유지를 위해 성경을 약이라 생각하고 약으로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 아닙니까?

약으로 성경을 먹다보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집사님들은 하루 성경 3장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하루 성경 5장, 목사나 전도사 교역자들은 하루 10장을 읽도록 권고합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요 삶의 등불과 같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로 이끕니다. 말씀이 깊이 잠기면 자동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뒷사람과 대화할 때 뒷사람의 의중에 전혀 상관없이 내 할 말만 다한다면 그 얼마나 무례한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깨닫고 기도하면 가장 기도가 잘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중국의 내지선교회를 창설하며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믿음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용서의 십자가가 필요한 세상**

-사랑, 용서, 평화

님의 공화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 대한 용서이며, 이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 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도 재발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할 따름이다. 서로 관용하며 용서가 필요한 세상이다.

**용서가 사랑**

사랑과 용서는 배치될 수 없는 개념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죄인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요약된다. 하나님은 죄인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이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의 용서를 통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말씀하신 한마디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는 사람

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발 씻기는 장면의 초점이 가롯유다에게 우선하여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된다. 주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스승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있음을 아시면서도 발 씻기는 일을 하신 것이다. 약한 마음을 품은 가롯유다와 같이 밤을 먹고 한자리에 계시면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요한은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질문이 생긴다.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긴 인생이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을 드러내시며 발을 씻겨주었다면 그 어떠한 인생도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기가 전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롯유다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에 상관없이 자기 할 일을 그대로 해버렸다. 주님은 어떻게 결말이 배신으로 끝날 그런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셨는가? 한마디로 그의 사랑과 용서는 제한과 예단이 없으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사랑과 용서와 섬김은

주님을 닮은 우리의 사랑과 용서에도 제한과 예단이 없어야 한다. 사랑했는데 어찌 저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일흔 번에 일곱 번을 용서하면 제대로 용서한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뭘소 보이신 것이다. 몇 번을 용서해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아예 그런 전제들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다.

사랑할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섬김이 아니라 처세술에 불과할 것이다. 비록 변화의 구체적인 열매를 볼 수 없다 하여도 상관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김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뒤로 칼을 휘두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용서의 전제**

용서에는 큰 전제가 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이 모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

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이 아니다. 미워하는 것 자체를 주님은 싫어하지 않는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관용해야 한다. 목회가운데 빈 가슴이 될 때가 있다. 스스로 미움과 정죄의 감정이 솟구칠 때 이를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된다. 그럴 때는 차라리 목사 말고 다른 일을 했어야 했는가 싶을 정도로 속이 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든 기준들이 나 자신 속에 있었음을 발견하고 회개의 제목을 찾게 된다.

**삶의 복음 - 용서**

삶속에서 누리고 나누어야 할 최대의 복음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음같이 남을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이 짐을 벗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8면으로 계속)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년 월 일      신청인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Happy Easter!**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회장 샘 신 목사 TEL. (213)215-6029



###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인도의 지정 부족들(SCHEDULED TRIBES)



수천년 동안, 인도는 수많은 종족 집단들의 고향이 되어 왔으며, 그 종족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문화를 유지해오고 있다. 인도에는 14개의 주요 언어가 있으며 이 나라 전역에는 또다시 수백개의 다른 방언들이 사용되고 있다. 힌두교의 복잡한 "카스트" 제도로 해서 사람들은 끝도 없이 많은 사회계급, 직업군, "지정부족"으로 한층 더 많이 나뉘고 있다.

"지정부족"은 3천만 이상의 인도인에 이르며, 여기에는 브힐, 곤드, 산탈족과 같은 큰 종족들도 포함된다. 하지만 사회체제나 결혼 관습, 언어, 종교와 또 어느 정도로는 그들의 고립된 위치에 따라 구별될 수 있는 소규모의 지정부족들도 많이 있다. 주위 종족들과는 달리, 지정부족들 각각은 그 자체의 사회적으로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불가촉천민(untouchables)"이라고도 알려진 이 부족들은 가장 하층의 힌두 카스트가 된다. 그들은 상당히 개발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정치와 경제의 주류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1949년에, "불가촉"이란 것은 불법화 됐고 이 부족들은 특별대우를 하기 위해 "지정"됐다.

삶의 모습 지정부족들 많은 수가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 밖의 다

른 부족들은 나라 전역에 퍼져 있다. 많은 수는 격리된 지역에서 산다. 그들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만, 아직도 사냥과 채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부족들도 적은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정부족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일을 하는데, 즉 산림에서 나는 식량을 채집하고 사냥하는 일, 화전농업, 정주농, 농업 임노동, 가족 사육, 가내 수공업, 기타 잡일들을 한다.

화전농업을 하는 부족들은 대개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 주변에서 산다. 그들은 그곳의 식물을 태워서 땅을 깨끗이 한 다음, 원시적인 도구로 땅을 일구고, 작물을 심는다. 작물을 수확한 후에는 새로운 땅을 선택해 다음 작물을 심는다. 곡물과 과일이 주요 작물이다. 필요하다면 산림에서 나는 채집물로 식량을 보충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농장의 노동자로 고용돼서 별도의 수입을 벌기도 한다. 부족들의 적은 수는 아직도 반쯤은 방랑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고 땃을 놓아 잡으면서 1년에 3-4번은 돌아다닌다.

지정부족들 대부분은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살며, 대개는 지도체제가 매우 약하다. 부족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다. 그들 공동체의 핵심적인 것 하나는 결혼 관습이다. 이 부족들 대부분은 족내혼을 하므로, 자신의 사회집단 내의 사람들과만 결혼한다. 젊은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지만 많은 수는 아직도 부모의 말을 귀담아듣는다. 소수의 부족들에게는 여전히 신부의 가족에게 "신부값(bride price)"을 지불해야 하는 관습이 있다. 때때로, 여기에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신랑측으로선 충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많은 노동과 희생이 따르기도 한다.

씨족은 가족 다음으로 중요하다. 씨족은 공동 조상의 자손들이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이룬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초상이 있으면 씨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여 공군에 빠진 가정을 돕는다. 많은 씨족들은 농토와 가산을 가장 활동하기 위해 종종 단일한 조직으로서 함께 일한다. 많은 부족사회에는 예술, 음악,

춤이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예술적 재능은 집안을 장식하는 모습에서, 옷을 짜서 입는 모습에서, 또 몸을 치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순한 장신구에서 드러난다. 문신은 매우 대중적인 것이며, 많은 부족사람들이 몸에 한 문신이 드러나도록 옷을 적게 입는다. 그들의 음악에서의 음정은 제한된 옥타브 내에 있다. 부족의 춤은 단지 몇몇 동작만을 가지고 한번 춤 때 반복을 한다. 특별한 가수나 춤꾼도 없이 모든 남자, 여자와 아이들이 노래와 춤을 다 함께 한다.

지정부족들 많은 수는 가장 강력한 이웃인 힌두교 사람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많은 전통관습을 포기했고, 이제는 힌두교 관습들을 많이 따라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마(힌두교의 가장 높은 카스트인 사제와 학자)의 것을 따른다. 그들의 전통종교의 몇몇 흔적들도 발견되고 있지만, 이 부족들은 주로

힌두교도로 여겨지고 있다.

### 필요로 하는 것들

얼마 안되는 소규모 부족들에게는 자기들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기록도 자원이 없다. 대규모 부족들 몇몇은 선교단체가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고립되어 있는 이 부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굳건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족 공동체 모두에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농업, 교육, 보건 분야에서 절실하다. 의료품 공급과 자질 있는 의사, 간호사들은 외진 지역에서는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 부족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기록도 사역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아마도 기독교인 교사와 의료팀은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갖게 될 것이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CCM뮤지션의 감동실화 "아이 캔 온리 이매진" 큰 호응

워싱턴 머시미(MercyMe) 리드보컬 바트 밀라드(Bart Millard)의 실제 삶을 모티브로 한 기독교 영화 "아이 캔 온리 이매진(I Can Only Imagine)"이 지난 16일 북미 현지 극장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이 영화는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독립영화로는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미국 유명 티켓판매사이트인 판당고(Fandango)와 무비티켓닷컴(MovieTickets.com)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한 이 영화가 티켓판매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영화는 실제 CCM 뮤지션인 바트 밀라드(Bart Millard) 노래 "아이 캔 온리 이매진(I Can Only Imagine)"의 탄생과정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바트 밀라드와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가족이야기를 담았다.

바트 밀라드의 어린 시절은 집을 나간 어머니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입는 아버지 때문에 힘에 겨웠다. 그런 그에게 음악은 가장 큰 위안이 돼주었고, 그는 아버지와 깊은 갈등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명곡 "아이 캔 온리 이매진(I Can Only Imagine)"을 만들어 낸다.

또한 밀라드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어머니도 가정으로 돌아와 밀라드는 가정의 회복을 경험한다.

밀라드는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이 절대 닿을 수 없는 한 사람을 꼽아달라고 물었다면, 백번이고 아버지라고 대답했을 것이다"고 말하며 실제로 아버지와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내 최고의 영웅이 되셨다"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영화에서 잘 표현됐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 제작자 머시미(MercyMe) 밴드의 히트곡이기도 한 "아이 캔 온리 이매진(I Can Only Imagine)"은 영화 흥행에 힘입어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 200만을 넘었다.

#### 중국, 소수민족 · 종교 통제 강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당의 영도'를 강조하면서 공산당 핵심기구 중 하나인 중앙통일전선부의 역할도 크게 강화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1942년 설립된 통전부는 비공산당 정파 및 인사와의 교류를 총괄하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기구로, 공산당의 의도대로 상대를 유인·포섭하는 임무를 맡는다.

전날 발표된 당정 기구 개편에서 소수민족 문제를 다루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국가종교관리사무국이 통전부의 감독을 받게 됐으며, 해외 화교 업무를 맡는 국무원 교무(僑務)판공실은 아예 통전부에 통합됐다.

이는 앞으로 당이 전면에서 나서 소수민족, 종교, 해외 화교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 주석이 당 기구를 통해 직접 이러한 문제를 관장하리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시 주석은 집권 후 공산당의 영도를 강조하면서 종교에 대한 억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중국 내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했다.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 정책도 강화해 신장(新疆)웨이우얼자치구에 치안병력을 대폭 강화하고, 위구르 언어와 교육, 종교활동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수년 새 이 지역에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통전부는 시 주석의 집권 후 홍콩, 마카오, 대만, 해외 유학생 등 그 관장 영역을 계속 확대해왔으며, 지난해 5월에는 신장웨이우얼자치구를 다루는 새 부서를 설립하기도 했다.

홍콩대학 슈훙토 교수는 "통전부는 당 최고 지도부의 영도하에 더 강력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게 됐다"며 "대외적으로는 서방의 '중국 위협론'에 맞서 평화롭고 안정된 중국의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에서 중국의 영향력 침투를 경계하면서 중국의 대외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어 통전부의 이러한 '야심'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통전부 기능의 강화 외에도 '당이 모든 것을 통솔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앙선전부, 중앙조직부의 직능과 직권도 확대했다.

중앙선전부가 직접 전국의 신문, 출판, 영화 등 미디어 사업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조직부는 국가 공무원 교육 폐지도 당정 모든 공무원의 인사와 조직을 총괄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 영도소조를 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공업정보화부의 '국가 컴퓨터인터넷 및 정보안전관리센터'를 산하 단체로 편성할 것도 중국 공산당이 직접 인터넷 미디어 분야를 맡겠다는 상징적인 의사 표시다.

중국인 이변 당정기구 개편이 공무원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타(李拓)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이변 당정기구 개혁은 당의 통일 영도와 총량, 협조 체제를 강화해 과두체제와 자원분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당 중앙의 정책결정 역할이 확립되고 공무원의 정책집행 범위가 보다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와 함께 이변 당 조직 재편을 통해 외교도 당 업무로 끌어들이었다. 당 중앙외사영도소조를 중앙외사공작위원회라는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 외교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 터키군 점령 아프린 지역 복음주의교회 목사의 호소

"올리브 언덕이란 별명을 갖고 있던 아프린은 비탄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물과 전기가 끊겼고 생필품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교회 건물은 터키군 손에 넘어갔을 겁니다. 쿠르드족 안식처가 파괴됐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족 거주지인 아프린에서 복음주의교회를 담임했던 마지드(가명·37) 목사는 26일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그는 2주 전까지만 해도 신자들과 예배를 드리고 쿠르드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터키군이 아프린을 점령하면서 그와 성도들은 모두 피난을 떠나야 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아프린 쿠르드족 주민 17만명이 탈출했다.

"터키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신자들은 믿음을 이어갔고 소그룹 가정 모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게는 300명까지 예배를 드렸지만 아프린이 공격받으면서 신자들은 떠났고 최근까지 20~30명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시리아전쟁 발발과 함께 설립됐다. 12년 전 알레포에서 소수 쿠르드족 크리스천이 모인 게 시초였다. 이후 쿠르드족이 주민 대부분인 아프린으로 옮겨 교회 활동을 했다. 교회는 시리아 정부로부터 허가

를 받았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마지드 목사는 터키의 아프린 공격에 대해 "터키가 아프린을 공격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그만큼 평화로운 곳이었다"며 "터키가 아프린을 공격한 것은 시리아 내 쿠르드족의 확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쿠르드 사람들은 운순하다. 나라 없는 설움 속에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과 압제를 당하며 살았다"며 "시리아 내전을 겪으며 쿠르드족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께서 쿠르드족을 지키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쿠르드족 교회는 아직 신생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신학교나 정식으로 안수 받은 목회자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쿠르드족은 이슬람을 알고 아랍어에도 능통해 향후 중동 선교의 촉매 자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1만여명의 쿠르드족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드 목사 역시 쿠르드족 출신이다. 무슬림이었던 그는 11년 전 예수를 영접하고 개종했다. 그는 "당시 교회 목사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잊지 못한다"며 "쿠르드족도 복음이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인터뷰는 중동 A국에서 활동 중인 B선교사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마지드 목사의 실제 이름과 교회 명칭은 안전상 밝히지 않았다.

#### '텅 비어가는' 영국 교회가 사는 법

영국 교회가 텅 비어가고 있다. 주일에 교회를 찾는 성도는 줄어들고 목회자만 예배당을 지키는 1인 교회가 급증하는 추세다. 냉혹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팔짱만 끼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영국 성공회는 신앙심 회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세례식이나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인생의 3대 중요 이벤트를 활용하거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디지털을 전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실시된 영국사회태도(British Social Attitudes) 조사에 따르면 영국 인구의 53%가 무종교인이었다. 성공회교도는 15%에 불과했다. 청년층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세인트메리대 스티븐 블리번트 교수의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영국 젊은이 70%가 무종교인이었다. 여론조사 기관 콤레스(ComRes)가 비슷한 시기 조사한 설문 결과도 압도적인 마찬가지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성인 비율은 고작 6%에 불과했다.

영국 교회는 그래도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기구단체인 크리스천에이드와 터어펀드가 지난 1월 콤레스에 공동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무종교인의 55%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한다고 대답했다. 즉 무종교인이 늘고 주일예배 참석률이 저조하지만, 이는 현대인들이 더 바빠져서나 관심사가 이동해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해석이다.

성공회 산하 '라이프이벤츠(Life Events)'의 대표인 캐빈 샌드라 밀라 목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인들은 관심사가 달라지고 삶이 바빠졌다"면서 "사람들이 매일 교회에 가기보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몇 번 교회에 나가도록 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성공회가 내놓은 대책은 간단하다. 사람들의 변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인생의 중대한 순간에 교회가 함께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밀라 목사는 "세례식이나 결혼식, 장례식 등과 같은 인생의 중대한 순간이 되면 우리는 교회에 가서 촛불을 켜고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려고 한다"며 "교회는 이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나 웹페이지 등 디지털 활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실시한 #GodWithUs

해시태그 이벤트에는 무려 680만건의 반응이 이어졌다. 성공회 웹사이트는 1년에 3500만 페이지뷰를 기록했다.

성공회의 디지털팀 대표 아드리안 해리스씨는 "많은 기독교인이 창조적인 디지털 기술로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이런 디지털 혁신은 미래 교회를 위해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전국 각지서 초대형 '총 없는 세상' 집회

24일 미국 전역에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우리 목숨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이 열렸다. 이번 시위는 1960-70년대 베트남전쟁 반대 시위 이후 젊은이들이 주도한 미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도 지원 시위가 잇따랐다.



주목 집회가 열린 워싱턴DC에서는 총기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스톤텐 더글러스 고교 총기 참사 생존자 캐머런 캐스키(17)는 "혁명이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운동을 시작한 뒤 사람들은 내게 '어떤 변화라도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라. 우리가 그 변화다"라고 말했다. 또 의회를 겨냥해 "우리를 대변하지 않을 거라면 (거기서) 나오라"고 압박했다. 2학년생인 캐스키는 같은 학교 생존자 에마 곤잘레스(18·여)와 함께 미국에서 총기 규제 운동을 주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학생 활동가다.

"6분20초. 그 시간 동안 17명의 친구가 죽고 15명이 다쳤으며 더글러스 공동체 모두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연설을 시작한 곤잘레스는 총기 폭력이 가져오는 정서적 충격에 대해 설명했다. 채 2분이 안 되는 짧은 연설이었다. 그는 내내 글썽이며 숨진 학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가만히 서서 4분26초 동안 침묵했다. 연설과 침묵을 합친 6분20초는 지난 달 14일 더글러스 고교에서 참극이 벌어진 시간이다.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의 손녀 올란다 르네 킹(9)도 무대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올란다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는 할아버지의 명언을 인용하며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세계가 총기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0만명 이상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워싱턴 집회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잇는 도로인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서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입법부에 총기 규제 정책을 촉구하는 차원이다. 백악관은 이날 총기 규제 집회 관련 성명에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용감한 미국 젊은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회가 열리기 직전 휴식을 이유로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골프 클럽으로 떠났다.

워싱턴 집회에는 마일리 사이러스, 아리아나 그란데 등 세계적 팝가수와 조지 클루니 등 할리우드 스타도 동참했다. 클루니는 50만 달러를 후원하기도 했다.

총기 규제 집회는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등 각지에서 열렸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뉴욕에 약 15만명이 모였다고 전하며 "혁명이 시작될 때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집회에 참가한 가수 폴 매카트니는 총기에 희생된 비틀스 멤버 존 레논을 언급하며 "이 근처에서 총기 사건으로 내 소중한 친구가 죽었다"며 총기 규제를 지지했다.

한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와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에서는 총기 휴대를 옹호하는 맞불 집회가 열려 총기 규제 시위 참가자들과 일부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프랑크 왕국은 샤를마뉴 대제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유럽 전역을 장악하는 거대한 왕국의 황제가 교회의 수장인 교황 앞에 머리를 숙인 이후,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강력한 정치력을 지닌 프랑크 왕국 황제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교황은, '기독교 왕국'으로 변신한 유럽을 장악하는 최고봉의 자리를 굳혀갔다. 교황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샤를마뉴 대제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과 부족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도록 하였다. 기독교는 프랑크 왕국을 통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

프랑크 왕국은 유럽 역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분명한 길을 제시하였다. 게르만족의 이동이 야기한 과거의 혼란했던 유럽 역사의 기억을 지우고,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새로운 꿈을 가져다 준 것이다. 절대적인 힘을 지닌 한 지도자의 탁월한 통치력은, 서로 다른 여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한 덩어리로 녹여낼 수 있었다. 절대적인 힘을 지닌 왕국의 한 부분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특권 자체가 지닌 긍정적인 의미 때문이었다.

한 사람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거대한 왕국을 통일해가는 과정 속에서, 각 나라와 부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같은 민족끼리도 황제에 대한 무조건 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정치적인 구도가 일반적인 권력 투쟁의 역학이다. 가장 바람직한 구도는, 상황에 걸맞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일 것이다.

샤를마뉴 황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력이 우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왕국'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거침없이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프랑크 왕국의 역사를 통하여, 지상에는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샤를마뉴 대제의 죽음과 함께 프랑크 왕국의 기저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미 우리는 메로빙거 왕조(Merovingian dynasty, 481-751)의 눈부신 발전과 쇠퇴의 역사를 살펴본 바 있다. 클로비스 1세(Clovis 1, 446-511)는 로마의 행정 조직을 도입하고 성직자들을 등용시켜 국가의 통치 체계를 견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 네 명의 왕자들에게 나라가 분할된 후 멸망의 날을 경험하였다. 샤를마뉴의 카롤링 왕조(Carolingian dynasty, 751-987)도 전철을 그대로 밟았던 것이다.

샤를마뉴의 죽음과 함께 프랑크 왕국은 3명의 왕자들에게 분할되어 주어졌다. 그러나 처음부터 왕위 계승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샤를마뉴가 막내 왕자에게 제국을 상속하였지만, 다른 형제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재산 분할과 힘의 분배를 둘러싸고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내전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샤를마뉴에게 충성을 보였던 각 부족들은 정치적 구심점을 상실하면서 혼동에 빠지게 되었다.

두 가지 조약-베르딩, 메르센

843년, 세 왕자의 갈등을 종식하고 프랑크 왕국을 세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베르딩 조약(Treaty of Verdun)'이 성사되었다. 샤를마뉴의 노력의 노력으로 인하여 세워진 하나의 강

통치하던 로타르 1세가 사망하면서 유럽은 재차 중대한 지각 변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로타르 1세는 자신의 영토를 세 아들들에게 나누주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동프랑크 왕국'과 '서프랑크 왕국'으로 흡수되었다.

870년 '동프랑크 왕국'과 '서프랑크 왕국'의 통치자들이 메르센이란 도시에 모

신성로마제국, 카페 왕조

918년 '동프랑크 왕국'의 마지막 왕인 콘라트 1세(Conrad 1, 800-876)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모습의 국가로 출발하게 되었다. 918년부터 962년까지 하인리히 1세(Heinrich 1, 873-936)와 오토 1세(Otto 1, 912-973)가 통치하면서

속에 휩쓸리다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를 서로마의 정치적 수장으로 인정하는 의미로 관을 씌어주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서프랑크 왕국'은 향후 어찌 되었을까? 987년, '카롤링 왕가'의 마지막 왕인 루이 5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여 왕조의 혈통이 단절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크 공이었던 위그 카페(Hugues Capet, 938-996)가 같은 해에 프랑스의 왕이 되었다. 카페는 '서프랑스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가문 출신으로, 미약하나마 샤를마뉴 대제의 피를 소유한 인물이기도 하다.

비록 봉건 귀족들의 추대로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그는 제대로 왕권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을 이겨야 했다.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도 왕권을 나누어주어 공동의 왕으로 격상시키기도 하였지만 출관 매우 강력한 봉건 귀족들과의 지속적인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 왕조는 향후 1792년까지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문의 자리를 지키게 된다.

새로운 상황-역전, 재역전

중세 서유럽은 기독교 정신과 봉건제도를 바탕으로 유지되었다. 기독교 정신은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봉건제도는 사회체제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 봉건제도는 유럽의 사회적 변화 가운데 생겨난 제도로서 봉건 영주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국왕의 역할이 축소되는 새로운 현상을 가져왔다.

사회적 무질서 속에서 하층민들은 봉건 영주의 보호를 자청함으로써 영주들과 봉건적 위계질서인 봉신관계를 맺었다. 주군에 대한 군사적 봉사에 대한 대가로 영토를 부여받는 형식이었으며, 경제적인 면을 넘어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봉건 영주의 위치가 확고해지면서 교회와 정치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조성되었다. 무엇보다 교회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하여 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했다. 고위 성직자들은 대부분 대제후의 봉신이 되었으며, 이로써 세속 영주들은 교회를 봉건제도의 부속물로 여겼으며 거침없이 주교와 수도원장을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기독교의 정신은 봉건제도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날로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반면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던 오토 1세는 뛰어난 정치인의 두뇌를 지닌 자였다. 봉건 제후의 세력에 맞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는 중앙집권적 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회를 향해 정치적 간섭과 교회재산 보호를 약속하였다. 봉건 영주를 멀리하고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주교와 수도원장에 엄청난 재산과 정치적 특권을 약속하였다.

로마의 교황도 예외가 아니었다. 항상 이탈리아 귀족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바, 교황 요한 12세는 오토 1세가 자신을 위해 로마 귀족을 제압할 수 것이라 기대하였다. 결국 963년, 오토 1세는 이탈리아 정복에 성공한다.

(9면으로 계속)

#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8)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샤를마뉴 황제는 이상적 '기독교 왕국' 실현위해 여러 제도 도입 '베르딩 조약'으로 영토분할...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토대 탄생

려한 기독교 왕국이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선천으로부터 물려받은 왕국이나만큼, 만일 세 왕자들이 동맹하여 부친이 평생 고수하였던 정치 철학을 계속 이어갔다면 어찌되었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베르딩 조약'으로 이뤄진 영토 분할을

여서 조약을 맺은 것이다. '중프랑크 왕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메르센 조약'을 통하여 더욱 분명해진 것이 있다. 이미 '베르딩 조약'을 통하여 근대국가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면, '메르센 조약'은 유럽이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동쪽에 독일과 서쪽에 프랑스, 그리고 동남쪽에

독일 왕국'이 잠시 등장하였다.

962년, 오토 1세는 로마교황 요한 12세로부터 황제의 제관을 받았다. 이로써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성로마제국'의 첫 황제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오토 1세는 '서프랑크 왕국'의 황제였지만, 신성로마제국은 현재 유럽의 독일, 체코, 오스

## 중세 서유럽은 기독교 정신과 봉건제도를 바탕으로 유지 봉건영주 권한확대 왕권 약화...기독교정신은 날로 세속화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유럽의 대표적인 근대국가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의 토대가 탄생하게 되었다. "동 프랑크 왕국"은 루이 왕에게 주어졌는데, 현대 독일에 해당한다. '서프랑크 왕국'은 찰스 대머리왕에게 주어졌는데, 현대 프랑스에 해당된다. 두 왕국의 중간에 위치하였던 '중 프랑크 왕국'과 이탈리아 지방은 장자 로타르 1세에게 주어졌다.

'베르딩 조약'은 잠정적 평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855년에 '중 프랑크 왕국'을

이탈리아로 더욱 분명한 모습으로 갖추게 되었다.

'메르센 조약'과 '베르딩 조약'은 야만족이라고 불렸던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시작된 유럽의 역사에 근본적이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물론 향후 유럽은 계속 변화되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슬람 세력의 확장 및 바이킹이라 불리는 노르만족의 이동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동프랑크 왕국'과 '서프랑크 왕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동부의 일부, 베네룩스 3국 정도의 영토를 포함하고 있었다. 오토 1세는 황제로 즉위한 뒤, 자신을 샤를마뉴 대제의 후계자로 선언하였다.

동서 로마의 분할은 이미 395년에 이루어졌으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되어, 서로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로마의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로마 교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서로마의 황제는 유럽의 지속적인 지각변동과 함께 소용돌이



#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미주한인교회  
송구영신예배  
2017.12.31 주일 저녁 10시 30분 비전센터 분당



2018 교회표어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성탄 축하예배  
Merry Christmas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 성교도 신앙 (49) 국가, 정치, 교회

들어가며

오늘도 정통적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마땅히 세속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는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 세속주의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신앙적 입장을 취함으로 참된 경건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사회에 대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부,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경건하고 거룩한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경건하고 거룩한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가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복지와 안락을 위해 초점을 맞추는 이념이 우선순위를 두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의와 선을 추구함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균등의 분배, 세계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문화 산업의 개발, 부정과 부패로 상징되는 정치 세력의 개혁, 감각적인 표현주의에 대한 방향제시 등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현재의 미국 사회는 청교도에 대한 이해 없이는

## 미국의 이념: 개인의 자유, 도덕적 가치관, 경건한 공동체 만들기 분리주의자들은 종교 자유, 경제적 이유로 네덜란드 거쳐 미국행

그 근본과 진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에, 성경적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정치와 교회 개혁에 대한 관점들을 살피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조엘 비키(Joel R. Beeke)와 마크 존스(Mark Jones)가 지은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 로널드 월리스(Ronald S. Wallace)의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 원종천의 “칼빈과 청교도 영성”, 오덕교의 “청교도와 교회개혁”, “언덕위의 도시”와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in Lloyd-Jones)의 “청교도 신앙”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국가에 대한 자세, 청교도적인 정치 사상, 개혁주의와 청교도의 교회 안에서의 올바른 정치에 대한 국면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국가의 이념

#### 1. 개혁적인 의지

청교도들을 중심한 미국의 이념은 개인의 자유, 도덕적 가치관, 경건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종교적인 이상주의가 미국의 중심을 이끌어 왔다. 이런 전통에 의해서 자연히 미국의 목사들은 정치가처럼 행동하는 사회를 이루어 왔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의 건국이념을 통해 미국과 교회에 대한 이해를 살피므로 우리는 미국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정치와 개혁에 대한 자세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구체적인 정황과 이념을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던 분리주의자들과 비분리주의자들과는 범주 안에 제한하여 알아보자. 청교도들은 먼저 분리주의자와 비분리주의자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그룹들이 추구하는 사회의 구조, 곧 플리머스 정착민과 보스턴 이주민들의 신대륙 이민의 동기, 그들이 추구하던 사회의 모습, 두 지역에서 실시된 정치 형태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1620년 메이플라워(Mayflower)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여 매사추세츠의 남동부 플리머스(Plymouth)에 정착한 102명의 분리주의자들이 있다. 10년 후 1630년 3월 아르벨라(Arbella) 등 10 여척의 배를 타고 보스턴에 도착한 비분리주의자들이 있다. 플리머스 건설의 주역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의 “플리머스 식민지에 대하여”(Of Plymouth Plantation, 1620-1647)와 보스턴 식민지의 터를 닦은 존 윈스롭(John Winthrop)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두 식민지의 건국이념에 대해 살펴보려한다.

청교도 운동을 정확하게 분류하거나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운동은 칼빈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1559년 엘리자베스(Elizabeth)가 영국의 여왕으로 등극할 시점과 더불어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가의 중흥을 위해 종교적 관용정책을 펴자, 피의 여왕 매리(Mary)의 박해를 피해 대륙에 있던 800여명의 개혁자들이 귀국하였다. 이들은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영국 교회 안에 남아있는 로마 천주교회의 잔재를 제거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국 교회 당국은 교회 개혁에 소극적이었으며 오히려 개혁을 방해할 때가 더 많았다. 교회 개혁이 지체되자 많은 사람들은 영국 국교의 자체에 대해 대항하였고 이는 1580년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이 “지체하지 않는 종교개혁, Reformation Without Tarrying for Any”이란 책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을 쓰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 1) 플리머스의 분리주의적 입장

영국교회의 부패 원인은 믿음이 없고 부패한 자를 신자로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순결한 상태로 돌아가서 신자로 구성된 참된 교회를 조직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과 그 주장을 따르는 이들이 1606년 스크루비(Scrooby)에서 “고백자들의 모임”이라는 비밀집회를 결성하고 영국 교회로부터 철저히 분리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분리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소수였던 분리주의적인 청교도들은 세상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들은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도들이 오염될 것을 염려하여 세상과의 명백한 분리를 주장함으로써 문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신자가 아니면 천교에 동참할 수 없으며, 기존 질서는 악의 세력 아래 점령된 어두움의 영역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과는 무관하다고 인정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 1590-1657)는 로마 천주교회의 잔재를 가지고 있던 영국 성공회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런 교회와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영국 국교회는 구약 시대의 선

#### 2) 보스턴의 비분리주의적 입장

윈스롭(Winthrop)을 비롯한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 안에 남아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영국 교회에 비록 로마천주교회의 잔재가 남아있지만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면 분리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도승이나 은둔자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성경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 것을 명명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모든 세상의 문화가 최종적으로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만물을 그에게 끌어올려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문화 변혁자의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비분리주의적인 청교도들은 분리주의자들이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개혁하고자 할 때 동의하지 않았고, 비록 영국 교회가 죄로 오염되었을지라도 그 안에 남아있어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 신대륙을 향한 동기

##### 1) 분리주의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와 경제적 번영

분리주의자들은 영국 교회가 성호를 긋는 것, 성찬상에 무릎을 꿇는 것, 성직자의 복장 착용의 의무를 강조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갈등의 관계에 있었다. 분리주의자들에 있어 양심의 자유는 언제나 중요한 주제로, 언제나 양심의 편에 서기를 좋아했다.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양심을 거슬리며 죄의 멍에 아래 있는 쪽을 택하였지만, 윌리엄 브래드포드와 그를 따르는 분리주의자들은 양심을 위해 감옥에 들어가는 편을 택한다는 입장이었다. 부패한 교회에 남아 있기보다는 양심의 자유를 위해 고난과 분리주의를 택한 것이다. 정부는 분리주의의 확산을 염려하여 그들에게 가혹한 박해를 가하자, 분리주의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덜란드로 도피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도피 생활은 비참했다. 분리주의자들이 도착했을 때,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한창 전쟁 중이었다. 1610년 휴전 협정을 맺었으나, 휴전 종료 시기가 1621년이어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양심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전쟁의 위협에 시달린 피난민들은 일하는 것보다는 농기를 일삼고, 그들의 자녀들은 영어를 잊어버리고 네덜란드인처럼 행세하면서 영국인의 정체성을 잃어갔다. 청교도의 많은 자녀들이 네덜란드 청년들의 방탕함과 유혹에 빠져 위험한 길로 들어섰고, 고베 풀린 땅아지처럼 부모를 떠나 군인이 되거나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고 방종하였으며 그들의 영혼이 위협스러운 곳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선량한 청교도들의 양심을 괴롭혔다.

그들은 세속화의 도전을 피하고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염되지 않은 땅으로 이민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양심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었다. 분리주의자들은 새로운 피난처를 찾았고 자유와 약속의 땅 신대륙으로 이민을 계획하게 되었다. 먼저 그들이 신대륙으로 이민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플리머스에서 33년이 나 주지사를 지낸바 있는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힘든 노동과 각박한 월급, 그들이 당해야 하고 감수해야 할 또 다른 불편함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민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들은 네덜란드에서 망명객으로 가난하게 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 12년의 휴전이 곧 끝나게 될 것이며 전쟁 준비를 알리는 북소리밖에는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고, 모든 일들은 모호하였기 때문이었다. 양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네덜란드를 떠나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영국에는 실업자가 많고 구제소와 병원이 노인으로 가득 차 있고 임대업자는 호의호식이나 세입자는 굶주리고 있었다. 플리머스 정착촌의 사업관리관으로 일하던 로버트 쿠쉬먼(Robert Cushman, 1579-1625)의 보고는 “아메리카 대륙 인디언의 땅이 광활하게 텅 비어 있으나 그들의 경작지는 아주 적은 부분이며, 여우와 들짐승만 우글거렸고, 게다가 인디언들은 게으르며 땅을 경작하거나 그 땅의 특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없었으며 그들은 그 땅을 땅가뜨려 못쓰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옛날 족장들이 좁은 지역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넓은 땅으로 옮겨 정착한 것처럼, 이제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땅을 취하자”고 말하면서 신대륙 이민을 설득하였다. 그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된다면 지금 영국에서 당하는 모든 경제적 격차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다고 역설

하였다.

분리주의 중에 라이덴(Leiden) 그룹의 지도자 모트(G. Mourt)는 뉴잉글랜드에서 정착하기 위해 여러 곳을 탐사하였고 마침내 플리머스에 정착하였다. 그는 정착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땅은 3-4년 전부터 곡식들이 심겨져 있었고 언덕 사이로 아주 단 물이 흐르는 개천과 마실 수 있는 작은 샘들이 많고, 작은 배와 뚝단배가 마음껏 항해할 수 있으며 개울에는 물고기들이 충분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는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넓은 들이 있었다.“이와 같이 그는 플리머스의 정착 배경을 경제적인데서 찾았다.

또한 플리머스 식민지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보였던 토마스 머턴(Thomas Morton)도 분리주의자들의 정착 배경으로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다. 그는 신대륙의 정경을 “고급스런 나무들로 이루어진 작은 숲, 우하하고 아름다운 작은 산들, 섬세하고 적당하게 넓은 들, 맑고 수정 같은 우물들, 맑은 시내가 미로처럼 꼬여있어 목초지를 지나 흐르며” 많은 새, 물고기, 비둘기, 나무들이 있어 낙원처럼 보인다”고 묘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리머스의 정착자들이 신대륙을 영국인들에게 널리 알리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유익을 홀로 누리기 위함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와 같은 증언을 통해, 우리는 분리주의자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된 주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이었던 것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younsuklee@hotmail.com

##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 담석증

### 40대 이상의 여성중 비만인 경우 흔해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를 저장했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 효소를 십이지장으로 분비해서 소화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담낭에 돌(담석)이 들어 있으면 담낭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가 안 될 수 있고 담도를 막아서 급, 만성 담낭염이나 췌장염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 40대 중반의 가정주부 임 모씨는 2개월 전부터 오른쪽 상복부에 간헐적으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통증은 주로 식사 후 시작됐고 특히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한 후에 심했다. 최근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육류는 거의 피하고 있다. 통증이 있을 때는 너무 심해서 일을 하다가도 쉬어야 할 정도였고 명치 끝을 꼭 찌르는 듯 한 통증이 우측 상복부를 타고 올라갔다. 통증은 2-3시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데 때로는 온종일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통증이 있을 때 발열은 없었고 설사나 변비도 없었다.

최근에 실시한 위 검사는 정상으로 판명되었다. 임씨는 과거에 특별한 질병을 앓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다. 담배나 술은 전혀 하지 않고 현재 복용하는 약도 없었다. 검진 상 혈압은 120/80mmHg, 맥박도 분당 70회로 정상이었다. 키 157센티미터에 몸무게는 82킬로그램으로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에 속했다. 복부 검진에서 상복부를 촉진할 때 통증이 있었다.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는 정상하였고 간기능 검사 등도 모두 정상이었다. 복부 초음파검사상 1센티미터 정도의 담석이 보였다. 임씨는 담석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담석증은 미국에서 2,500만명이 진단을 받았고 매년 100만 명이 새로 진단을 받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담석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4F(Female, Forty, Fatty, Fertile)라고 한다. 즉 40대 이상의 비만 여성에게 흔하고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에서도 흔한 나타난다.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 담석의 위험이 높고 운동을 하지 않거나 당뇨병을 앓는 경우도 담석의 위험이 크다. 또 담석은 동양인이나 백인, 히스패닉에서 많지만 흑인에서는 빈도가 낮다.

담석증의 증상은 식사 후 약간 더부룩하게 느끼는 증상에서부터 심한 담도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담석이 진단되었다고 해서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담석은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자신에게 담석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담석으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담석증은 약물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 치료에 수개월이 걸리고 재발하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급성 담도 질환인 경우는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적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마치 좋은 일을 한 후에 집에 돌아와 옷을 벗고 편안함을 누리듯이, 인생의 죄의 짐을 벗어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인생이 가진 죄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심의 자유를 위해 고난과 분리주의를 택한 것이다. 정부는 분리주의의 확산을 염려하여 그들에게 가혹한 박해를 가하자, 분리주의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덜란드로 도피하였다.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인격으로 수양으로 하지 말고 무엇보다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친히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용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다. 더불어,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후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과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용서와 기도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용서는 불가능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용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못하는 용서는 여전히 자기의 의만 쌓아갈 따름이다.

용서는 은혜의 가리움

햇볕이 좋은 날, 군에서 담요를 털어본 적이 있는가?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멈추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서너 번 털고 그만 댔다하면서 가지고 들어가 덮고 자면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담요가 없듯이 털면 모두에게 크고 작은 과실들이 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교회의 장로였기에 훨씬 많은 기대감을 가졌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본다는 뉴스거리에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 같아 마음에 아픔이 있다.

이러한 현명에서 세상을 향한,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거룩한 성도의 책임은 무엇이었는가? 정치적 견해의 호불호를 떠나 조국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다. 주님! 2018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부모와 자녀간, 교회의 성도간에, 직장 동료들간에, 정치적 편견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은혜와 사랑, 용서와 평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무엇보다 기도

davidnjeon@yahoo.com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산교회교회 담임)

천국의 7대 경이(驚異)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메시지는 천국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대의 이상향(理想郷, Utopia)이자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인간이 가진 말 중에 천국이란 말 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1.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 천국은 허무맹랑하게 꾸며낸 상상(想像)의 장소가 아니라, 분명히 실재(實在)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단 지 개념(概念)이거나 환상(幻想)의 산물이 아니고, 실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천국의 실재를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하여 27번 언급(4:17,5:3,10,19,7:21,8:1,13:11,24,31,44,45,47,52,16:19,1,8:3,4,23,19:12,14,23,20:1,22:2,23:13,24:14, 25:1)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2. 천국은 동등하고 공평하다. 이 세상에는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가난하고, 어떤 이는 행복하고 어떤 이는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매우 건강합니다. 어떤 이는 잘나고 어떤 이는 못나고, 어떤 이는 똑똑하고 어떤 이는 무식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공하는데 어떤 이는 실패합니다. 어떻게 세상에는 같지 않은 것도 많고, 불공평한 것도 너

무 많지만, 천국에서는 차별이 없고, 모두가 다 동등하고, 공평하다는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3. 천국은 영혼구원에 관심이 많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므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천국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의인 99명보다 죄인 1명이 회개하는 것을 천국에서는 더 기뻐합니다. 천국에서는 세상사람(不信者)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다는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4.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존 뉴턴은 천국에 가서 3번 놀랐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 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과 둘째는, 천국에 와 있어야 할 사람이 그곳에 없더라는 사실과 셋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 들어오기만 하면 나도 여러분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5. 천국은 회개와 믿음으로 가는 곳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만일 천국에 간다면, 천국 문 앞에 하나의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직 회개한 자'라고 쓰여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의인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오직 한 길 뿐이라는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6.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 많다.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을 보면, 12 진주문이 있고, 순환금길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와 생명나무, 오색영롱한 보석들로 지어진 화려

하고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슬픔과 탄식이 없으며, 질병이나 아픔이 없고,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눈물과 애통 그리고 곡하는 것이 없으며, 다시 밝이 없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해나 상함을 당하지 않는 놀라고도 경이로운 곳입니다.

7. 많은 사람이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천국이 이처럼 화려하고 놀라운 곳이며, 영원한 안식처요, 완전한 만족을 주는 곳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이 이 세상에 쾌락과 소망을 갖고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으며,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2018년도 상반기 미주한인 주요교단 총회

3월 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 시작으로 6월 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까지

2018년도 상반기 한인교단총회가 지난 3월 28일 열린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를 시작으로 오는 6월 11일 미국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까지 일제히 개최된다. 다음은 2018년도 상반기 미주한인주요교단 총회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Table with 3 columns: 날짜, 교단, 장소. Lists church conferences from March to June.



베데스다대학교 개강부흥회에서 본교 찬양팀이 찬양인도하고있다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라” 주제 베데스다대학교 봄학기 개강 부흥회

베데스다대학교(부총장 에스터 조 박사)는 20일 오전 11시 교직원 및 재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봄학기 개강 부흥회를 가졌다. 베데스다대학교 전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부흥회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말씀의 능력 안에 풍성히 거하라”(골3:16)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진 교수는 “첫째, 우리 자신이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시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바로 성경이

다.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역사를 증명하고 계신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대로 안되기 때문에 늘 낙심과 절망 그리고 좌절을 하게 된다. 둘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을 주신다. 이세상은 죄와 질병 등이 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불순종 하므로 심판이 온 것이다. 그것은 세계 어디나 동일하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힘들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 용서를 증거 하셨다. 주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사망관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진유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정라: 박준호 기자)

한미연합회 Coaches Award 수상

2018 사회변혁FastPitch&Showcase서 한인 비영리단체로 유일

한미연합회가 지난 22일 열린 “2018 사회변혁 Fast Pitch & Showcase”에서 최종결승 단계로 선발돼 3분 스피치 결승 경연에 참가했다. 최종 결승진출자로는 유일 한 한인 비영리단체로서, 선발된 최종 선발 비영리단체를 10곳 중 주목할 만한 단체에게 주어지는 Coaches Award와 함께 6천 달러 이상의 상금을 수여받았다. 이번 경연에 지원한 저명한 50개의 비영리단체 중, 각 단체의 사회공헌도에 따라 20단체가 준결승을

거쳐 선택된 후, 최종 선발된 10개의 단체 대표들이 마지막 결승전을 치렀다.

최종 10명의 최종선발 단체들은 이번 결승전에서 주어진 3분 안에 심사위원과 600명의 방청객을 대상으로, 각 단체들이 후원받기 적합한 이유를 나누고, 단체들의 방향성과 의미 있는 업적들을 나누면서 상과 상금을 놓고 겨루었다.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은 “이번 경연을 통해 한인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한미연합회는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모두 함께 통합적인 LA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한미연합회는 2018 사회변혁 Fast Pitch \_ Showcase서 Coaches Award를 수상했다

(7면에서 계속)

나아가서 오토 1세는 요한 12세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핑신도 공무원을 임명하였다. 교회법과 전통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였다.

800년, 교황이 사들마뉴 황제에게 관을 수여하였다. 교회의 위상이 국가 위에 놓이는 역사적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재역전이 되었다. 황제가 교황

을 임의대로 선출하는 우스꽝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중세의 매우 독특한 시대적 상황이 새로운 갈등을 낳았다. 곧 교회, 국가 그리고 사회의 권력을 지닌 자들 사이에 생겨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중세 교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covenantcho@yahoo.com

Large advertisement for 'Worldwide Church'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featuring a grid of 48 church listings with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



# 동부교계 기사판



## 이민자보호교회 1주년 기념행사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이 후원하는 이민자보호교회(위원장 조원태 목사)가 1주년을 맞아 5월 3일(목)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친구교회(빈상석 목사)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1주년 행사는 예배, 이민자보호교회 발자취, 심포지엄, 가입교회 소개, 전국대회 준비소개와 결단, 공연 등을 내용으로 준비 중이다.

▲문의: (718)279-1414

## 프라이스교회 설립기념 임직감사예배

프라이스교회(담임 허연형 목사) 설립 43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가 4월 1일(주) 오후 4시 프라이스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열린다. 이날 장로 장립, 협동장로 취임, 집사안수, 권사임직이 거행된다.

▲문의: (718)321-7800

## 헬핑핸드 2018년 단기선교팀 모집

헬핑핸드(대표 조항석 목사) 2018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한다. 봉사 지역은 아이티 Port Au Prince 인근 고아원 및 병원으로, 일정은 8월 13일(월)부터 18일(토)까지, 6월 16일(토)부터 훈련이 시작되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간씩 훈련한다. 참가 자격은 2018년 9월, 10학년 이상이 되는 학생으로 12명(고등학생, 대학생)+스텝 5명=총 17명. 참가비는 항공료(\$700)+참가비(\$500)=총 1,200달러, 신청 마감은 4월 20일이며 이메일(chohenry02@gmail.com)로 참가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참가신청서를 요청할 때 1)이메일 주소, 2)전화번호(부모님), 3)부모님 이름, 학생이름, 현재학년을 명시해야 한다.

▲문의: (201)446-4466

## 교회이전 및 친구교회 설립감사 부흥회

친구교회(구 뉴욕중앙예일교회, 담임 빈상석 목사)가 교회이전 및 친구교회 설립감사 부흥회가 4월 13일(금)부터 15일(주)까지 열린다. 시 간은 금, 토요일 오후 8시, 주일은 오후 1시30분. 강사는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이성철 목사다.

▲문의: (516)316-3833, (718)716-5346

## 퀸즈장로교회 길학문 장로 별세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길학문 장로가 지난 20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길학문 장로는 교회와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뉴욕노회), 총회(KAPC) 등의 사신활동을 담당하며 봉사해왔다. 또 길 장로는 본지가 매년 주최했던 세계한인문화축제미나에도 매년 참석해 사진촬영을 맡은 바 있다. 장례예배는 교회장으로 22일 드려졌다.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회원들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했다.

## 한국과 미국, 뉴욕교계를 위해 기도

### 뉴욕목회자기도회 3월 정기예배

뉴욕목회자기도회(MPAN, 회장 박이스라엘 목사)가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에서 3월 정기예배를 가졌다.

뉴욕목회자기도회는 지난해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위해 시작돼 10월부터 정기예배를 갖고 있다. 회장 박이스라엘牧사는 “출발은 한국을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 범위를 넓혀 미국과 전세계에 파송된 선교사, 그리고 뉴욕교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목사는 회원은 뉴욕일원의 목회자 12명과 사모(준회원)들로 한 달에 1회씩 정기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는 박이스라엘 목사 인도로 기도 이장종 목사, 설교 유상열 목사, 합심기도, 축도 정순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상열 목사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시12:1-6)이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첫째, 사탄의 잠과 둘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라며 “분별력을 갖고 깨어서 근신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합심기도는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마무리 박항우 목사) △미국과 동포사회를 위해(이성달 목사) △선교사님들과 교계를 위해(정대영 목사) △뉴욕목회자기도회를 위해(이장종 목사) 제목으로 했다.

다음 기도회는 4월 18일(셋째 수요일) 오전 10시30분. 장소는 추후 통지한다.

(유원정 기자)

## 건국이념과 신앙을 후대에 전하자

### 이승만박사 탄신 제143주년 경축예배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지회장 안창의 목사)가 주최한 이승만 박사 탄신 제 143주년 경축예배가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형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를 마치고 자라스런 대한민국 건국사 16차 세미나가 진행됐다.

예배는 남태현 장로(부회장) 인도로 기도 이계훈 장로, 성경봉독 이찬우 집사, 설교 김남수 목사, 헌금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축도 방지각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는 “복음의 스크프”(렘1:3-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구약에 5천여회 이상 언급된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아버지’라는 말로 사용됐다”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의 스크프를 받아 하나님 역사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이승만 박사의 건국이념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새로운 영향력을 끼치도록 잘 가르치기 바란다”고 전했다.

2부는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애국가 미국국가 제창이 있던 후 안창의 지회장의 인사말과 김기철 전 한인회장, 한재홍 전 지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3부 세미나는 “이승만의 꿈, 자유 대한민국” 주제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결하여 현영갑 목사가

강의했다.

현 목사는 “일본 항복소식을 듣고 이승만이 맨 먼저 한 말은 ‘대한인들이 자유인이 됐다’는 말이었더라”며, “Freedom은 성경적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자유 관계(요8)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모세의 출애굽 여정,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은 청교도들을 소개했다.

현 목사는 또 “해방 후 동시에 시작된 남한과 북한이 오늘날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 것은 이승만의 ‘부국강병’과 김일성의 ‘강병부국’의 차이에서 시작했다”며 한국의 GDP 세계 11위, 20-50클럽 7개국 진입(2012년), 군사력 세계 7위 등을 소개하고 남북의 차이를 ‘자유’라는 말로 설명했다.

이날 현영갑 목사는 현재 미국의 3단계 대북정책인 경제제재, 해상봉쇄, 비핵화금지구역 설정 등에 대해 설명하며 미국의 네오콘이나 티파티 같은 보수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살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는 현재 프라미스교회 7층에 사무실 겸 전시장 마련하고 후손들에게 이승만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이승만 박사 탄신 제 143주년 경축예배 및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뉴욕원로목사회 새 회장에 정익수 목사

### 제 15회 정기총회, 16일 빛과소금교회서

뉴욕원로목사회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제 1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회장에 정익수 목사를 선출했다.

빛과소금교회(담임 정순원 목사)에서 열린 총회는 정익수 목사 사 회로 회원점명, 회순제택, 개회선언 후 정익수 목사가 경과보고, 사업보고, 감사보고를 했으며 이수산 목사가 총 잔액 1,728,500달러로 결산(재정)보고 했다.

회칙수정 및 개정안은 이성철 목사가 “새로 시작하는 심정으로 통상회의법에 준하여 은혜롭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어진 회장선거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었던 정익수 목사가

회장직을 사양했으나 회원들의 80% 지지로 새 회장에 선출됐다.

원로성직자회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익수 목사 △부회장 김용욱 목사 △총무 소의섭 목사 △서기 한문수 목사 △회계 이성의 목사.

이날 총회는 신입 회장 및 임원들 인사가 있던 후 앞으로 발생하는 긴급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하고 회의록을 낭독한 후 폐회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성철 목사 인도로 기도 이성의 목사, 설교 정순원 목사(“끊임없는 감사”, 시136:1-5), 축도 립인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 전문치유사역자 상주 중독상담

### 뉴욕나눔의집, 4월 2일 중독세미나 개최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지난 13일부터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중독 전문치유 리더십 집중교육을 하고 있다. 이 교육은 4월 5일까지 진행된다.

박성원 목사는 “나눔의 집에서 전문 치유사역자들이 미주 지역 중독자를 위해 상주해서 상담을 하고 있으며 또 19일부터는 개인 혹은 집단상담을 하고 있다”며 “상담분야는 알코올/약물 중독, 인터넷/도박 중독, 신앙/가정 상담”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4월 2일(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중독 세미나를 진행한다. 대상은 뉴욕, 뉴저지 지역의 교회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그리고

중독사역에 관심 있는 분으로 장소는 뉴욕나눔교회(담임 정관호 목사)다.

한편, 박 목사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중독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뉴욕나눔의집에서 중독 전문치유 리더십 집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이노비, 존스 홉킨스대 어린이병원서 공연

문화복지 비영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첫 번째 아웃리치 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20년 연속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존스 홉킨스 의대 부속 어린이 병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공연은 현재 존스홉킨스 대학교 피파디 음대 연주자 과정에서 전액장학금을 받고 재학중인 줄리아 홀슨의 피아니스트 이승연씨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이승연씨는

올해부터 이노비 워싱턴DC의 헤드 디렉터를 맡아 올해 존스홉킨스 병원 첫 번째 공연을 맡았다. 그동안 이씨는 이노비 음악감독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꾸준히 봉사를 해왔다.

이번 공연에는 모두 피파디 음대에 재학 중인 두명의 오페라가수 레이첼 샌들러와 매들린 허스, 그리고 반주자 마테오 벨리, 색소폰 연주자 황태호가 참여해 유망 오페라곡들을 입원해 있는 5-10세의 아이들이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편곡해 준비했다.

이번 공연은 병원내 모든 병실로 생중계됐다.

이노비는 뉴욕에 위치한 문화복지 비영리단체로 2006년 뉴욕에서 시작됐으며 뉴욕, 뉴저지, 텍사스에서 활동해왔고 볼티모어에서는 이번이 첫 번째 공연이었다. 웹사이트 www.enob.org

▲공연/후원문의: (212)239-4438, enobinc@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h3>						<h4>뉴욕갯세미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0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헌정: 오후 08:00 한국교회: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nygod4p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semane.org</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p> <p>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헌정: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kyang.org</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b.org</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s@yahoo.com</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준준</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새벽학교: 오전 6:00</p> <p>Tel. (718)78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http://www.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산)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18)7406-7577, (718)9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itch.com</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1:00 창립기념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p> <p>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9:3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영양예배: 오후 8:0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주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분</p> <p>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4>퀸즈한인교회</h4>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영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금요찬양: 오후 7:30 금요헌정: 오후 7:30</p> <p>www.p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서늘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새소망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p> <p>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언</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영.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amp;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ninik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목사</p> <p>멕시코 번식 센터 교우</p> <p>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4번 주일 설교)</p> <p>Tel. (52)333-3507-4111 E-mail: haninik@haninik.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p>		





KAPC 가미노회 제66회 정기노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미노회 제66회 정기노회

#### 노회장에게 강영진 목사, 부노회장에게 문석호 목사 선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미노회(캐나다 서부지역)는 제66회 정기노회를 지난 12일(월)부터14일(수)까지 2박 3일동안 Harrison Hot Spring Resort에서 가졌다. 지교회 노회를 지난 12일(월)부터14일(수)까지 2박 3일동안 Harrison Hot Spring Resort에서 가졌다. 지교회 노회를 지난 12일(월)부터14일(수)까지 2박 3일동안 Harrison Hot Spring Resort에서 가졌다.

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및 성찬의 시간을 나누었다. 이번 노회에 새 임원이 선출되었는

데, 노회장에게 강영진 목사(캘리포니아 한인장로교회), 부노회장에게 문석호 목사(밴쿠버 시온성교회), 서기 이경원 목사(밴쿠버 목양교회), 부서기 이진우 목사(호산나한인교회), 회록서기 고철주 목사(캘거리중앙장로교회), 회계에 오영환 목사(철리와 기쁨의교회), 감사에 양종현 목사(주님의뜻 안디옥교회), 이승훈 목사(로고스교회)가 선출되었다. 13일(화) 오후 2시 강영진 목사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문석호 목사가 기도했으며 오영석 목사가 설교, 천영일 목사가 성찬예식을 집례했으며 차정호 목사가 성찬예식 기도, 그리고 천성덕 목사가 축도했다.

(기사제공: KAPC 가미노회)



라크마첼버합창단이 새생명오아시스교회에서 열린 사순절 찬양집회에 찬양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UCI로 부터 한인 시신 기증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 UCI로부터 한인 시신기증 감사패 받아

#### 소망소사이어티...2008년 2%→2017년 44%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UCI로부터 한인 시신 기증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 UCI에서 UCI 관계자와 의대 교수 및 의과 대학생, 시신기증자의 가족들과 시신기증 신청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메모리얼 서비스에서 시신기증자들에 대한 감사의 장으로 마련됐다.

의과대학생들이 직접 사회를 보고 의대 교수들이 나와 시신기증자들에 대한 감사와 단상을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UCI의 시신기증 프로그램에 소망소사이어티가 함께 참여하게 되

면서 2008년도에는 2%에 지나지 않았던 한인 시신기증 신청자들이 2017년도에는 44%로 늘어난 것에 대해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은 것이다.

유분자 이사장은 감사패 수여에 대한 답사로 "한인 이민자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여러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시신기증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이야기하며 소망소사이어티는 한인들에게 다만 그 길을 열어 주었을 뿐이고, 의과대학생들에게 기증된 시신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Culture \_ Society Event Production 주최 인문학 강의가 에바다 갤러리에서 열렸다

### "빛의 이야기" 주제로

#### Culture&SocietyEventProduction, 인문학 강의 성황

Culture & Society Event Production(대표 줄리엔 정)이 주최한 인문학 강의를 '빛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24일 오후 6시 한인타운에 위치한 에바다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강의는 이서희 에세이 작가, 사진작가 양희관, 피아니스트 레이첼김이 강사로 참석했다. 먼저 이서희 작가의 '비로소 빛의 날' 에세이를 줄리엔정 대표가 대독했으며 양희관 작가가 램프라트, 유섭카슈 그리고 양 작가의 작품들을 소개하며 빛에 대해서 강의했다.

피아니스트 레이첼 김은 드비쉬의 '달빛'을 소개한 뒤 클래식곡을

현대음악으로 편곡해 선보였다.

줄리엔정 대표는 "3년 전부터 강연시리즈를 하고 싶다는 생각했다.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각자 전문분야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자리에서 보여주면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에서는 10년 이상 여러 강연프로그램,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이어왔는데 LA한인타운에서는 인문학에 대해 다뤄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인문학에 대한 강연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어스틴 지역 부활절연합 새벽예배

어스틴한인교역자협의회가 주관하는 "부활절연합 새벽예배"가 4월 1일(주) 오전 6시에 어스틴한인장로교회(담임 이승태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512)454-1727

#### 2018 대학입학세미나

Fles College Prep가 주최하는 2018 대학입학 세미나가 31일(토) 오후 1시 알바인 레이크뷰 시니어센터(20 Lake Road, Irvine), 4월 7일(토) 오후1시 베버리힐스 퍼블릭 라이브러리(444 N Rexford Dr, Beverly Hills)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사립대학 입학과정, UC 입학과정, 대학, 그후?"라는 주제로 갖게 되며 데니번(Flex 설립자), 벤 로빈스(Flex Master Counselor), 안젤리 바스와니(Flex Associate Counselor)가 강사로 참여하게 된다.

▲문의: (213)352-8872

#### 리즈월드 한인연합 부활절 새벽예배

리즈월드 한인연합 부활절 새벽예배가 4월 1일(주) 오전 6시 LW한인커뮤니티교회(14000 Church Pl, Seal Beach)에서 열린다. 이날 설교는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가 '살아나셨느니라'(눅24:1-12)라는 제목으로 한다.

▲문의: (714)323-0897

#### 교회학교 교사 컨퍼런스

교사들을 위한 교사 컨퍼런스가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 주최로 3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문의: (951)454-2188

#### 남가주사랑의교회 자녀양육 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King's Kids'라는 주제로 자녀양육 세미나를 4월 3일(화)부터 24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본 교회 은혜채플에서 갖는다. 영, 유아,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며 차일드케어가 제공된다.

▲문의: (949)285-4864

#### 타코마 지역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타코마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박호준 목사)가 주관하는 타코마 지역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4월 1일(주) 오전 6시 타코마 제일연합감리교회(담임 박용규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53)589-0882

#### 북가주지역 2018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북가주지역 2018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북가주교회협의회 총연합회(회장 김용배 목사) 주관으로 부활절인 4월 1일(주) 오전에 일제히 열린다.

▲문의: 김용배 목사(510)468-5999, 조영구 목사(510)858-6674

### 각 지역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장소

다음은 각 지역별 교회연합회가 주관하는 부활절(4월1일) 새벽연합예배 장소 및 일시. △샌프란시스코 교회연합회(회장 여상환 목사), 새벽 6시,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담임 송계영 목사) △이스트 베이저 교회협의회(회장 김용배 목사), 새벽 6시, 섬기는교회(담임 이재석 목사) △노스베이저 교회

협의회(회장 이영선 목사), 새벽 6시, 노바토한인침례교회(담임 정병인 목사) △산호세지역 교회협의회(회장 윤민학 목사), 새벽 5시30분,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 △콘트라코스타지역 교회협의회(회장 천재우 목사), 새벽 6시, 트라이밸리장로교회(담임 이명섭 목사).

### 중고등부 사역자(youth pastor) 청빙

메릴랜드 솔즈베리(Salisbury,MD)에 위치한 한인장로교회에서는 풀타임, 파트타임 중고등부 사역자(youth pastor)를 모집합니다.

- 자격:신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사역 중 영주권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이력서(사진 첨부),자기소개서
- 제출서류는 yellowtree36@gmail.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문의 전화:410-713-2896(성낙인 장로)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alisbury (Salisbury,MD) is seeking a youth pastor(full-time & part-time) to lead our youth group.

- Qualification:Graduated an accredited seminary
- salary&Benefits:Competitive salary based on qualification and experience
- please submit a personal statement and a resume that includes a photo of yourself via email only(yellowtree36@gmail.com)
- here is no set deadline,but we will taking applications until we find someone.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Elder nakin sung at 410-713-2896.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45개국의 불우민족을 돕고 있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 담임 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에서는 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1 자격 요건**
  - 1) 정규대학, 신학대학원 (M.Div)를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 받은 분.
  - 2) KAPC(해외한인장로회) 소속이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3)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 (당회원 부목사 포함)되신 분.
  - 4)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 5) 연령 45 - 60세.
- 2 제출 서류**
  -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 3) 목회 비전과 소명서 1부.
  - 4) 신학교 졸업증명서.
  - 5) 소속교단 재직증명서.
  - 6) 목사 안수증.
  - 7) 추천서 (목회자) 2부.
  - 8) 최초 6개월 이내 설교 DVD 2편 (동영상 파일).
- 3 서류 제출처**

청빙위원회  
4839 Pearl Rd., Cleveland, OH 44109  
Email : younghlee53@gmail.com
- 4 제출 기간**

2018년 4월 30일 까지
- 5 기타**
  - 1) 서류 (Email) 혹은 우편으로 제출 바랍니다.
  - 2) 우편으로 제출 하신 분은 필히 Email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4)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 5) 사역하신 교회마다 2분 이상의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분의 전화번호(장로)

2018년 3월 15일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 청소년 인성교육 기독교계가 나선다

### ‘왕따’ 같은 학교폭력 예방·공동체 정신 함양

‘왕따’ 같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키우는 청소년 인성교육에 기독교계가 나선다. 종파 간 연합을 통해 ‘평화 캠프’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7대 종단에서 마련한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은 총 23개로 300여 차례 실시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종교계의 청소년 인성교육은 2013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23개 사업이 258회 이어졌다. 참가자는 1만6435명이었는데, 올해는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계의 인성교육 사업으로는 ‘썸+(썸플러스)’로 불리는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교단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품성 회복을 위한 인문학 커리큘럼을 담았다. 오는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학교와 교회 등에서 실시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로부터 종교 인성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YMCA는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생명·평화의 바람꽃’을 주제로 청소년 평화인성교육프로그램을 연다. 기독교 봉사단체인 온누리사

랑나눔은 5-9월 자원봉사 등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아바드 청소년 인성교육’을 준비 중이다.

주요 종단들이 함께 준비한 종교연합 인성교육도 눈길을 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일본에서는 ‘종교청년평화학교’가 열린다. 현장체험을 겸한 동북아 평화교육이 예정돼 있다. 국내 종교문화시설 순례길 강연, 토론회 등을 담은 ‘종교청년평화캠프’(7-8월) ‘세계종교청년평화캠프’(6-7월) ‘다문화가정 청소년 종교문화캠프’(9월) 등도 열린다.

문체부 관계자는 “종교계의 청소년 인성교육은 학교 폭력이나 왕따, 청소년 자살 등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인성교육 효과를 제강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동성애자 차별?...3년간 인권위 진정 모두 각하·기각

### 국가인권위 ‘성적지향 진정’ 처리 현황·인권통계 분석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사건으로 접수된 ‘성적지향’과 관련된 사건이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다는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나아가 부도덕한 성행위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행위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일보가 21일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현황 및 인권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를 이유로 진정된 13건의 성적지향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기각, 조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2015-2016년 처리 사건도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국가인권위 법령에 따르면 각하나 기각은 사실이 아닌 게 명백하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없을 때, 사건 취하 등의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만약 명백한 차별행위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는 특별인권교육 수강, 손해배상금 지급,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된 2001년 이후 지난 16년간 성적지향을 이유로 내리진 권고 결정은 11건에 불과했다.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는 “연평균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그나마 11건의 권고도 동성애 관련 현수막 철거 반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해제 요청, 헌혈 문진 시 동성애 접촉 여부 질문조항 폐지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인권침해나 차별보다 동성애자들이 사회문제로 이슈화시키기 위한 ‘기획진정’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인권위법에 규정된 합리적 이유, 차별사유, 법적근거가 있을 때 차별로 본다”면서 “각각하나 기각 사유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 많다 적다를 획일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동성애 때문에 채용, 승진, 교육시설 이용 등에 명백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발생했다면 행정소송이나 관계 법령을 통해 권리를 되찾아야지, 인권위를 통해 지역적 문제에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피해심리에 빠진 동성애자들이 인권위를 통해 차별도 아닌 사소한 문제를 제기할수록 사회 격리 현상이 더욱 고착화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개헌안, 동성애 옹호·조장 우려 커

### ‘대통령 개헌안’ 교계 반응

교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보수 기독교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근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진보 교계는 인권에 대한 명시가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는 기본권 확대 영역이다. 핵심 쟁점은 헌법 제11조 2항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여기서 ‘등으로 인한’은 범위의 모호성 때문에 차별시정 대상이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 즉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에 근친상간, 시한부 중 말론, 과격 이슬람 등이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이 조항은 동성애 옹호·조장에 앞장섰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헌안과 같다.

게다가 문재인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100대 공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등으로 인한’ 문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뒷받침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원평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에 앞장선

국가인권위의 헌법개정안과 거의 같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도 “대통령 개헌안에서 성적지향, 양성적 병역거부, 이슬람 난민 인정, 젠더(사회적 성) 등 직접적인 독소조항이 빠지긴 했다”면서 “하지만 모호한 헌법조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해석으로 얼마든지 인정할 만한 여지를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헌법 1조에서 제안한 지방분권이 지자체의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와 결합해 사실상 차별금지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신설된 제42조 2항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도 확대 해석하면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양성적 병역거부의 대체 복무제 인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만약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동성애를 옹호 주장하는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시, 무슬림 기도실 전면 취소

### 종교편향 지적에...2억원 들여 관광지에 설치 계획 입장 번복

서울시가 무슬림 기도실 추진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당초 서울시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5월 시내 주요 관광지에 무슬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기도실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서울시가 한류 관광객을 위한 편의사업 차원에서 기도실을 검토한 것일 뿐 무슬림만을 위한 기도실은 아니었다”면서 “올 상반기 기도실 운영 추진 계획도, 확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취소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본보 보도 전까지만 해도 “무슬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

어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내 관광지 2-3곳에 무슬림 기도실을 시범 유치할 계획”이라며 “어느 쪽이 적합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한류 관광객 편의 개선 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6.6㎡(2평)의 무슬림 기도실 공사일정 및 내부 인테리어까지 구상했으며, 기도실 운영자 인건비 2160만원까지 책정해 놨다.

하지만 본보 보도 직후 종교편향 논란이 제기되자 “무슬림 기도실 설치 계획은 아니며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당초

입장을 뒤집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종교편향은 특정 종교의 포교행위에 예산과 행정을 편파적으로 지원할 때 발생한다”면서 “국비와 시비 108억원을 투입해 불교 포교를 돕는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나 조작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역명에 사찰 이름을 집어넣은 서울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사례가 대표적 종교편향”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봉은사 미래위원장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다시 도전하려고 한다”면서 “만약 봉은사역명과 서울광장 쿠퍼쥬체 개최 논란을 깔고 가게 매듭짓지 못한다면 서울시민 30%에 육박하는 기독교인의 표심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러운 부교역자들...

“나이 든 부목사들을 기피한다는 정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40세 미만’만 청빙한다고 나이를 제한한 광고가 즐비하네요. 올해 마흔 둘인데 원서도 낼 수 없는 현실이 비참합니다.”

서울 소재 한 교회에서 6년간 부목사로 일하고 다음 임지를 물색 중인 어느 부목사의 하소연이다. 부목사들의 임기는 보통 7년이다. 다만 다음 사역을 찾지

생각을 하지 않고 연장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담임목사로 사역할 교회를 찾지 못하기 때문인데 교회들이 애초에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30대 목사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0대에 들어선 부목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 서민철(가명·44) 부목사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예 서류를 받지 않는 교회가 많다. 대책 없이 광야에 내몰

부목사 청빙은 지역교회 고유 권한으로 상위 기관인 노회나 총회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해외 유학을 떠나는 부목사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신학대학원에서 올라가 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는 A목사(41)는 “기약 없는 유학이지만 학위를 받으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계 일각에서 부목사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실력을 갖춘 부목사를 만들어 나이 제한

### 40세 넘으면 부목사 청빙원서도 안 받아

#### 대부분 교회, 30대 목사만 노골적 선호

못할 때는 당회에서 연장을 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선 심한 ‘눈치밥’을 피할 수 없어 하루라도 빨리 새 임지로 떠나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부목사를 청빙하는 광고를 보면 알 수 있다. 30대 목사를 노골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20일 장로회신학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초빙게시판에 올라온 광고들은 학력 기준 외에 모두 ‘40세 미만’이나 ‘30대 내외’같이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어떤 경우는 아예 ‘35세 이하’라고 못 박는 경우도 있다. 갓 안수 받은 목사만 청빙하겠다는 의미다.

교회들의 젊은 목사 선호 이유는 명확하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는 “40대 부목사를 청빙하면 7년 동안 사역한 뒤에도 사임할

린 기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는 목사 중엔 어쩔 수 없이 기책을 하거나 무임 상태로 아르바이트하는 분도 있다”며 “도대체 출구를 찾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장동수(가명·43) 목사도 비슷한 고충을 털어냈다. 그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마저 사라질까 두렵다”며 “40대 부목사는 교계에서는 그림자 같은 존재자라 반기는 곳 없는 천덕꾸러기”라고 토로했다.

‘무임(無任)’이란 사역지나 소속이 없는 목사를 일컫는 말이다. 교단마다 무임으로 인한 목사 면직 기준은 다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예장고신 총회는 5년, 예장통합과 한국기독교장로회는 3년이 지나면 사임을 권고하거나 자동으로 해직한다.

## 발달장애인 위한 설교 이렇게...

### 예장발달장애인선교연 발달장애인 설교자료집 출간

“천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잘생기길 했어? 몸이라도 건강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중)

발달장애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목회적 돌봄과 사역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을 위한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장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는 국내 교단 중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설교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사회봉사부 산하 단체인 연합회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설교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목회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설교집을 냈다.

주 저자인 최대열 목사는 서울 명성교회 장애인 부서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18년째 사역해 왔다. 3급 지적장애인이기도 한 그는 “발달장애인이 듣는 설교라 해서 다른 예배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의 내용이 아닌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무미건조한 설명보다는 생생한 이야기로 설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림 자료를 활용해 이야기 형식으로 설교하되 문단을 곁들여 회중의 참여와 집중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더 쉽게 전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설교는 설교 중의 설교”라고 강조했다.

설교집에서는 교회를 설명하면서 만남의 장소이자 구원의 방주, 생명의 오아시스라 소개하고 헬스클럽, 천국의 모델하우스 등의 그림을 곁들이고 있다. 또 이미 뻗뻗하고 혀가 둔했던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장애인들도 용기를 얻자고 설명한다.

설교집은 지역 교회 강단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성경에 기초해 삼

## 예장고신·예장고려 교단통합기념교회 기공식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총회장 김상석 목사)과 예장고려가 지난 24일 경기도 안양 만안구 박달로에서 교단통합기념교회 기공식을 가졌다. 2015년 9월 예장고신 제65회 정기총회에서 교단 통합을 결의한 지 2년6개월만이다.

예장고신은 지난해 9월 제67회 총회에서 통합기념교회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복 목사)를 만들

##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식 엄수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1879-1910)를 기리는 추모식이 26일 열렸다.

안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식은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안 의사 증손자 안도용씨, 안 의사의 이름을 딴 해군 잠수함인 안중근함 부함장 정장식 중

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교회경신협의회(교경협·대표회장 김태일 목사) 차세대위원회(위원장 정영교 목사)는 부교역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존경받는 교계의 원로 목회자를 비롯해 사역 노하우를 전수해 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사진을 꾸렸다. 장기적으로 사회학과 심리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부목회자들의 기본 소양을 길러 줄 각 분야 전문가들을 섭외해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다.

교경협 차세대위원장 정영교 목사는 “지역 교회들의 40대 부목사 기피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목사들이 경쟁력을 갖춰 교회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음 구원 소망 능력 승리 등 전하는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어린이부터 성인, 일반 교회까지 다양한 눈높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설교집에는 최 목사를 비롯해 이상록(창동영광교회 사랑부), 김병철(안양제일교회 시각장애인부) 목사 등 장애인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목회자들의 설교 원고가 실렸다. 최 목사는 “발달장애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편견이 있어 설교집을 만들게 됐다”며 “발달장애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식 엄수

어 기념교회 건축을 논의해 왔다. 최근 안양임심교회(김홍석 목사)가 교단에 종교부지 623㎡를 기증하면서 안중근의사기념교회 기공식을 가졌다. 2015년 9월 예장고신 제65회 정기총회에서 교단 통합을 결의한 지 2년6개월만이다.

예장고신은 지난해 9월 제67회 총회에서 통합기념교회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복 목사)를 만들

##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식 엄수

령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마키노 에이지(牧野英二) 도쿄 호세이대 교수 등 안 의사를 연구하는 일본인 교수와 변호사 등 30여명도 참석했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의거 직후 체포돼 이듬해 사형선고를 받고 순국했다. 정부는 1962년 안 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 “통일은 새로운 사역 기회... ‘통일목회’ 위주로 전환”

### 하나의코리아(새) 학술세미나 한국교회 실천 방안 제안

한국교회가 북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목회’를 지금부터 실천해 통일 준비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원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북한선교학 교수는 26일 ‘제3회 통일선교 학술세미나’에서 “통일 목회란 교회가 북음으로 통일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목회를

뜻한다”며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 목회를 한국 교회가 적극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통일선교단체 33회 통일선교 학술세미나에서 “통일 목회란 교회가 북음으로 통일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목회를

회,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송 교수는 ‘통일목회 교회의 살길’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또 다른 발제자인 정종기 ACTS 북한선교학 교수는 ‘성경적 배경에서 바라본 통일목회 패러다임’을 발표했다.

송 교수는 “이제 통일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사역 기회이자 책임, 공통의 소명이 됐다”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와 함께 경제·사회적 갈등해소, 다음세대 통일교육 방안을 준비해 지금부터 사역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교의 창 (98)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INTEGRITY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결코 단독자로 살 수 없다. 인간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누가 저들을 이끌어야 할 것인가? 지도자들이다. 지도자는 아무나 될 수 없다. 잠재해 있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가 너무나 중요하다. 세상의 지도자 기준은 그 인격보다 능력을 우선시 한다. 좀 덜 떨어진 사람일지라도 사업적 수단이 뛰어나고 전문성이 있으면 높이 산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다. 아무리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지도자로서 품성을 갖추지 못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 나아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 위에서 세워진 서구 사회에서 "Man of Integrity"의 평가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찬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회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인테그리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주로 눈에 보이는 일 위주이다. 결과는 어떠한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나 선교사 등 소위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자는 사역 못지않게 INTEGRITY를 중시하며 나가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고결(高潔)한 성품으로 성화되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 1. 인테그리티(Integrity)의 의미

Integrity의 어원(語源)은 라틴어 형용사 'integer'이다. 'integer'는 '온전한' '완전한'이란 뜻이다. 행동, 가치관, 행태, 기준,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을 인테그리티를 지닌 인물이라고 표현한다.

'인테그리티가 있다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균형 잡힌 생각과 원만한 인격을 지녔다는 말이다. 사전에 보면 Integrity란 정직(honesty), 신실(faithfulness), 정렬(purity), 고결(high nobleness), 온전(perfect unity)이라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어느 단어도 완전히 뜻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인테그리티의 또 다른 의미는 순수성이다. 네이버 사전에는 "완전한 상태, 흠 없음, 본래의 모습"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물질 또는 이질적인 그 무엇에 대하여 본래의 온전함을 보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Integrity는 정직함(honesty)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바른말을 할 줄 알고 불의에 행동으로 대항하는 용기와 희생정신(sacrifice),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겸양 등 우리가 관념적으로 선하다고 여기는 모든 덕목을 아우르는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이다.

### 2. 성경이 말하는 INTEGRITY

성경적 관점에서 Integrity와 가장 비슷한 단어는 거룩(holiness)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

## INTEGRITY란 의로움, 정직, 성실이란 복합적 의미를 지닌다.

영적 지도자는 사역 못지않게 자기 INTEGRITY를 점검해야 한다.

선교의 핵심은 가시적인 사역보다 인간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장 으뜸이며 그 백성에게도 요구된다(살전4:3).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구별이지만 Integrity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 시편 24:4은 인테그리티를 가진 사람의 표본을 보여준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 하는 자로다"

즉, 행위가 깨끗하고 담당하며, 마음에 속임이 없으며, 헛된 야망이나 이성을 가지지 않고, 지키지 못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 속에서 Man of Integrity의 가장 대표적 인물은 아마도 욥이다. 그는 흠을 데가 없는 인물이었다. 사탄이 그의 흠을 잡기위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온갖 시험을 하였다. 하나님은 그를 참소하는 친구들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거를 끝까지 지켰다. 그러나 욥기 후반에 보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 결핍함이 있었다.

"A Man of Integrity"로서 완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마가

복음 12장 14절 보면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바리새인과 헤롯당 사람 조차도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라고 표현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인테그리티의 모델이다.

### 3. Integrity로 문제가 된 지도자들

우리는 역사 가운데 Integrity 문제로 오명을 남긴 인물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4일 뒤인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이로써 그는 미 역사상 임기 중 사퇴한 최초이자 유일한 대통령

이 되었다.

한국의 이명박 장로는 스펙터클한 인생 역경 때문에 한 때는 셀러리엔의 신화로 추앙받았다. 30세에 현대건설 이사, 37세에 현대건설 사장, 48세에 현대건설 회장까지 승진하였다. 나중에 국회의원, 서울시장 그리고 마침내는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열심히 봉사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3월 22일 밤 구속되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분들이 어디 정치계뿐이라 문화예술, 교직계, 기독교 교계 등 사회 전반에 수없이 많다. 명성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과연 돌을 들어 질한 자가 누구인가?

### 4. integrity의 방법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Integrity를 회복할 수 있을까? 본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주님의 성품을 덧입을 수는 없다. 한 방울

씩 바위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꾸준한 자기 싸움이 있어야 한다.

"Man of Integrity"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딤후 3:15-17 말씀처럼 유일한 권위인 성경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육신의 소욕을 줄이고 성경의 소욕을 따르는 길이다. 둘째로 무시로 기도하며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일이다. 자기가 죽어지지 않는 한 부활의 새 생명과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 셋째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빛과 어둠 사이의 중간 지대는 없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지배한다. 가만히 서 있으면 세속이 떠밀러가게 된다. 적극적으로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러야 한다.

종합적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다. 그는 원래 다혈질적이고 완악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다. 그의 거친 성품은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빚어졌다. 그가 쓴 옥중 서신이나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또 한 사람의 성자를 보게 된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Integrity를 보게 된다.

맺음 말

성경에 아브람, 다윗 외 수많은

## 선교기고



정운길 선교사  
(실버선교훈련원장)

## 시니어 평신도를 전도와 선교의 자원으로

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9세기는 여자의 발견 시대로, 그 이전까지는 여자의 존재가치는 별 볼일 없는 시대로, 성경에서도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여자에게는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않아 갓난이 또는 충청댁 등으로 불렸었습니다.

20세기는 어린이의 발견 시대로 그 이전까지는 '아이들은 저리가!'라며 완전히 무시되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이 상전이 되어 야구장에 가자면 야구장에 가야하고 수영장에 가자면 수영장에 가야하고 애들이 보는 TV 채널을 바꾸면 난리가 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21세기는 노인의 발견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노인이 별로 없었지요. 인생 60이면 고령으로 장수한다고 환갑잔치도 하고 온갖 어른신 대접을 했지만 지금 환갑잔치를 먼 옛날이야기가 되었고 30년을 더한 90이나 되어야 환갑노인의 대접을 해드리고 생신상도 차려드리지요.

이처럼 노인들의 증가와 역할의 확대는 목회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전도나 선교에 등을 돌리고 교회도 떠나 그 자리를 시니어들이 채우므로 전도와 선교도 시니어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니어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는 이유도 시니어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가 아니라 자체 교회 내에서 계속 치고 올라와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약간 다르지만 한국은 교회 성도들이 급속히 조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는 한국사회가 50세 중반만 되면 벌써 직장에서 퇴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앞으로 살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과 맞먹는 긴 세월을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은퇴 후에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일찍 은퇴를 시켜서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더 일하고 싶어도 심지어 빗자루를 들어도 "할아버지 우리가 할 테니 주시고 쉬세요"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야말로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교회에서도 뒷방 노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자신들은 어디서 일해야 할까요?

나는 아직도 젊고 건강한데 그래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디를 좀 도와줄까? 여기저기를 기웃거리 보지만 와서 도와달라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이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만 찾지 말고 눈을 돌려 선교에 헌신한다면 그야말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니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시야를 교회 밖으로 돌려 선교지에 가보면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시니어 사역에 대해 고민은 늘어난 가지 만 교회 내 시니어들을 어떻게 전도와 선교할 수 있게 훈련시키느냐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고민을 우리 실버선교회와 말아서 담당한다면 교회로서는 참으로 다행이며 절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를 너무 젊은이들에게만 국한하여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회자들이 목회의 관점을 시니어 목회에 두고 이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시니어들이 사는 지역이나 복음의 불모지인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적 삶을 사시도록 시니어 평신도를 기르는데 목회의 중점을 둘 때입니다.

▲연락처: (847)612-8520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30(월-금) 오후 6:00(토)</p> <p>Tel: (206)579-7576, Fax: (2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b>벤엘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토요세례기도: 새벽 6: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토요세례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b>샬럿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세례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유,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p>	<p><b>안다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8,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bs.com</p>	<p><b>앵커리지베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엘파소열린문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해(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킬린노드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토요세례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alettran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7시 세례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ric.com</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 오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b>아리조나 기도원 매매</b></p> <p>좋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에 위치한 아리조나 기도원을 좋은 가격에 매매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 7.3에이커</li> <li>· 건물 3동 과 예배실</li> <li>· 피닉스 공항에서 50마일 거리</li> </ul> <p>문의: 623-326-5532</p>	



# 자율자동차 상용화, 유토피아를 약속하는가?

## 이코노미스트, 향후 전개될 자율자동차 시대 부적절 오용 경고

새로운 종류의 이동수단이 도로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아직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과연 안전할까? 기존의 이동수단과는 어떻게 공존하게 될까? 정말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까? 모두 자율주행차에 관한 질문들이다. 자동차가 처음으로 상용화 됐을 때도 똑같은 질문들이 제기됐었다. 자동차는 운전자에게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선물했고, 그렇게 세상의 변화를 주도했지만, 상점들이 일렬로 죽 늘어선 스트립 몰부터 도시 스프롤 현상, 분노 운전,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나 피해를 낳기도 했다. 지금 자율자동차는 우리가 아는 이동수단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으려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코노미스트는 따라서, 자율자동차의 두 얼굴 즉 긍정적, 부정적 측면들을 소개하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한다(Self-driving cars offer huge benefits-but have a dark side: Policymakers must apply the lessons of the horseless carriage to the driverless car).

자율주행차는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인간의 감독 없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단계에 가까워졌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사업 부문 웨이모(Waymo)의 목표는 올해 하반기에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robotaxi)'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GM)는 2019년에 자체적인 완전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26일, 캘리포니아주는 공공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교통사고, 대기오염, 교통혼잡, 주차 문제 해결 그 대가로 갈 수 있는 자유 포기... 정치적 문제

자율주행차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이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운전자 없는 자동차 시대의 도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는 먼저 옴으로 호출하는 로보택시의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다수의 고객이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면서 고정비용이 상쇄될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는 비용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마일(mile)당 훨씬 더 저렴해지면서 최소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가용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

UBS 은행에 따르면 2050년에는 도시 지역 자동차 소유자의 수가 70%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는 전체 보유 기간의 95%가량을 주차장에 방치돼 사용되지 않는다. 로보택시의 상용화는 주차장 부지로 낭비되는 땅을 최소화하고 도시 설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자율자동차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청정 전력망이 구축된 지역에서는 유해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

스마트한 내비게이션, 차량 간 거리 감소,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 설정 등으로 교통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자동차는 도시생활(차 안에서 일하거나 잘 수 있으므로 장거리 출퇴근이 훨씬 수월해진다)과 소매업체(고객을 찾아가는 이동식 가게의 시대가 온다)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자동차 회사들도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개인이 아닌 택시, 렌터카 업체 등을 상대로 한 대량 판매에 주력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경제학자와 도시계획가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왜냐하면, 자율자동차의 등장으로 이제 자동차 이용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완벽하게 계산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간대, 교통량, 이동 거리 등에 따라 산출된 km당 비용을 바탕으로 도로사용료와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도시 교통 시스템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시계획가들은 세금과 이용료를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가난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장거리 이동에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몇몇 도시들은 이미 특정 구역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거나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는 우버, 리프트 등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 로보택시 이용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반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어두운 측면도 있다.

자율주행차는 도시 변혁을 가능하게 할 놀랍도록 섬세한 정책 도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도구가 독재 정권의 손에 들어간다면, 사회 통제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먼저, 자율자동차는 차량 내부와 외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기록한다.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가장 먼저 주변 차량들이 무엇을 목격했는지부터 조사할 것이다. 차량 관리회사들은 탑승자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일례로 우버가 승객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나잇 스탠드

를 한 사실까지 알아낸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만약 미래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예 금지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로보택시가 특정 목적지에 가기를 거부할 경우, 이는 부당한 차별과 사회적 격리를 낳을 것이다. 독재국가에서는 로보택시가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오늘날의 뉴욕을 축조한 도시계획가 로버트 모세가 뉴욕과 롱아일랜드의 바닷가를 잇는 고속도로인 사우스 스테이트 파크웨이 건설할 당시, 승용차를 모는 부유한 백인들만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 높이를 일부러 낮게 설계하여 버스에 탄 가난한 흑인들은 차별했던 것을 떠올려 보자.

또 다른 예로, 중국 정부는 개인의 활동을 기반으로 각 시민에게 '소셜 크레딧'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 점수가 낮으면 기차 여행이 제한된다.

올해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되면 앞으로 더 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상용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금은 단순히 기술이나 교통 정책 외에 더 많은 것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가

격 정책, 도심 지역 개인소유 차량 금지, 로보택시 경쟁업체 간의 라이선스 경매 등은 모두 시의적절한 사안들이다. 하지만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사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지각변동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교통사고, 대기오염, 교통혼잡, 그리고 주차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스스로 차를 몰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 어디를 언제 어떻게 가느냐의 선택은 불가피하게 정치적 문제로 직결된다.

100년 전, 자동차는 도시 거리를 비료로 뒤덮이게 했던 말(馬)이라는 교통수단을 대체할 획기적인 해결책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자동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위험은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광범위한 변화를 간과한 채, 과거에 그랬듯이 자율주행차를 단순히 기존의 자동차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여긴다는 데 있다.

(15면으로 계속)

### 선/교/소/식

## 남미아태대학원, 황문규 목사 초청 학술강좌 및 좌담회

남미아태대학원(원장 강성철 선교사)은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브라질 초기 선교사(1967-1979) 황문규 목사를 초청, 다문화 목회와 선교 50년 경험담을 나누며 학술강좌 및 좌담회를 가졌다.

초교과적으로 브라질 교포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43명에게 참석해 황 목사가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현실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지혜를 구하며 서로간의 사정과 형편을 내놓고 도움을 구하며

좌담회를 마련하고, 4일 연합교회(전도명 목사) 1부 2부 설교, 짜라텐 짜스 한인제일침례교회(장호경 목사), 서울교회(하경남 목사) 등에서 말씀을 전했다.

황문규 목사의 일정은 브라질 초기 선교사로서 역사적 의미를 나누었기에 참으로 유익했으며 53년의 현장경험을 학문적으로 정립해 간증과 함께 전하므로 참석한 모든 이들의 호평을 받았다.

시니어선교사들의 영역이 점



남미아태대학원 황문규 목사 초청 학술강좌 및 좌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제 2 교향과 같은 브라질을 사랑하며 브라질에 대한 추억과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초기 선교사 황문규 박사의 간절한 소원 속에서 시작됐다.

황 목사는 "브라질에 오고 싶으나 누구 하나 초청해 주지 않으니 올 길이 없었다"며 "강성철 선교사가 미주크리스천신문에 게재한 "브라질 한국인의 선교역사"를 읽고 평소 안면이 있는 강 선교사에게 항공비와 숙식비는 자부담 할 터이니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청원하여 브라질 일정 시작됐다"고 밝혔다.

강 선교사는 "연세가 88세이신지라 몇몇 교회에 강단을 부탁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방지일 목사님, 임택권 박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목회자 및 선교사, 평신도 리더를 모시고 학술강좌를 정기적으로 하여왔기에 저희 선교부 이름으로 초청하고 일단 신문에 광고를 냈다. 그리고 영광교회 김용식 목사에게 장소와 아침, 점심을 부탁하고 스케줄을 잡았다. 3일 GMS 신학교에서 현지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강

점 좁아지고 현실적으로 냉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황문규 목사의 브라질 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1. 초기 선교사인 선배 선교사의 뜨거운 소원과 자비량으로 오시겠다는 마음 2. 불확실하고 환영치 않은 분위기일지라도 확신을 갖고 초청한 남미아태대학원이 역사적인 의미를 나누고자는 목적을 가지고 초청한 지혜로운 결단이고 3. 어려운 여건 속에 장소와 식사를 선뜻 응해준 영광교회와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을 허락해준 교포교회가 있었기에 모두에게 유익한 공유선교가 됐다.

강성철 선교사는 "전 세계에 흩어져 개척선교를 하신 초기 선교사님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의외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번 황 목사님의 브라질 일정을 도우면서 느낀 것은 후배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계신 선배님들을 찾아 선배들이 가지고 계신 유산과 같은 한국인 신앙과 선교신학 및 경험담을 함께 나누며 한국선교를 바로 세우고 보존하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남미아태대학원)

# 고든 콘웰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모집

Doctor of Ministry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Ministry  
Korean Pastoral Theology in Practice

### 교수 소개



**문석호 교수**  
(Dr. Suk Ho Moon, M.Div., D.Min., Th.D)  
뉴욕호신장로교회 담임  
\*Understanding Philosophy and Christian Apologetics,  
\*Spiritual Leadership: Searching for Vision, Transformation, and Harmony.



**류용렬 교수**  
(Dr. David Ryoo, M.Div., Ph.D)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전 총신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

강 의 2018년 7월 23일 - 8월 3일  
접수마감 2018년 5월 9일

목회자의 삶 속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며 성경적인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을 목회철학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시대의 유행에 따라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교회의 예배와 섬김의 소명을 약화시키지 않는 온전한 목회를 지향한다면 어떻게?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성경에 근거한 신학과 목회로 행복한 목회자로 준비되어 섬기는 각 교회마다 거룩한 영적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1.800.816.1837 | dminoffice@gcts.edu  
www.gordonconwell.edu/dmin

Doctor of Ministry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6)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차장)

기업 경영과 성경적 원리

다음은 Richard C. Chewning 가 편집한 "기업 경영과 성경적 원리"에 소개한 성경적 원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우리는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도덕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지닌 인간

이며 생산적인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8.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과 자연 질서에 조화되는 경제 체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줄 수 있도록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생산성 향상을 장려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할 수 없도록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

도덕적 기준을 갖도록 부름 받았다. 이것은 양심, 일반적인 경험(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자연법, 도덕법, 사회적 관습에 비추어 세울 수 있다.

14.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으며, 이것은 모든 성경 말씀이 성경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도덕적 존재인 인간은 시장에서 높은 도덕적 기준 가져야 하나님 뜻과 자연 질서에 조화되는 경제 체제 알 수 있어

에게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이를 위해 그의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책임 있게 발휘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개발시켜야 한다.

3.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4. 인간은 '타락'했지만 동시에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약해질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이를 다스릴 때 과학, 기술, 예술, 음악, 기타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하나님은 기업 경영과 경제생활에 대한 관점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참된 성경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기를 원하신다.

6.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 사회적, 지적 역할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즐기도록 창조하셨다.

7.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보상과 처벌로 자극을 받으며, 내적으로 태도와 욕구와 헌신으로 동기 부여가 되도록 창조하셨다. 이러한 것들은 창조적

며, 자원을 낭비하거나 사장해서는 안되며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더 많은 노동의 수고와 양질의 노동에는 더 큰 보상이 따라야 하며,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하며,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남은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

9. 사유 재산은 청지기 정신과 개인의 도덕적 선택에 있어 중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그것은 성경의 역사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하신 중요한 부분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창조명령(Creation mandates)을 성취하고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을 수행하기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10. 성경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11.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의 영역에서 주된 '사역'을 하도록 부르시며, 그들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 양식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12.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만큼, 시장에서의 우리의 의도나 생각, 행동이 하나님께는 똑같이 중요하다.

13.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서 높은

15.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충성이나 초점에 따라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진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라는 양자 모두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각자 한 개인이다/우리는 공동체의 일부이다', '인간의 평등/불평등', '율법/은혜', '하나님의 주권/인간의 책임', '청지기/소비자', '자유/통제', '창조명령/지상명령', '다스리는 자/종', '권위/순종' 등이 있다.

16.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진리이다. 그러므로 상황을 판단하여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한계와 불안정성에 대해 수반되는 우리의 책임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17. 성경적으로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 통치자에 대해 수반되는 우리의 책임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18.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때나 사할 때, 또 놀 때나 시장 경제 내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dr.jameskoo@yahoo.com

(14면에서 계속) 자율주행차는 패킷 교환 기술이 인터넷 데이터 전송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교통수단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처럼

자율주행차 또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가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이동의 자유와 사회적 문제 해결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

을 찾음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우리가 말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마차를 타면서 얻은 교훈을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화형 목사(캄보디아선교사)

매일가정예배

whiteyou11@yahoo.com

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전14:1-2)찬259장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은 교회를 섬기는 은혜인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시고 먼저 사모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첫째, 사랑 분위가 되어 합니다(1). 사랑이 모든 은사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는 곧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1). 여기 신령한 것이란 구원을 중심한 각종 은사를 가르칩니다. 교회가 주님의 형상

인 사랑을 나타내려면 지체들이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 영적유익을 얻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언을 존중하라(2). 그 중 방언 추구보다 더 유익되는 예언을 구하고 권합니다. 이것은 앞일을 미리 맞추는 것보다 주어진 복음의 계시가 바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게 하는 설교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말씀 중심 된 교회는 예언을 존중하여 여겨 잘 깨달아 말씀중심한 삶이 되어 합니다.

화 건덕이 은사의 목적이다(고전14:3-6)찬27장

은사는 교회의 건덕을 위한 것입니다. 건덕이란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덕의 중요성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 교회의 덕 세움이 중요함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에 덕을 세우게 한 것처럼 바울 역시 성령의 연합을 위해 덕세움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권면을 위해 필요함입니다. 그 덕은 연합한 이웃을 책임지고 본을 보이며 권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권하는 일은 교회가 항상 힘써야 될 가르침입니다. 셋째,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덕이 세워질 때 일어납니다. 위로의 원천이신 삼위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깨달음을 주지 못하면 위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자랑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위로는 주님의 교회에 항상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런 위로자가 됩시다.

수 덕을 세우는 방법(고전14:7-12)찬278장

그러면 어떻게 덕을 세울까요? 사도는 그 실마리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교통위주이어야 합니다(7-11). 성도의 교통이 없는 덕은 병든 은사입니다. 성령의 교통을 위해 성령이 오셨고 높아지신 주님이 일하십니다. 공기 왕래가 없는 신앙생활은 질식합니다. 주님과 교통이 성도의 교통으로 나갈 때 성령은 연합을 이루십니다. 둘째, 이타주의여야 합니다(12). 극도의 이기주의인 자율주의는 교회

연합에 제일의 방해거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부패성)을 공격하는 신자가 건강합니다. 셋째, 풍성히 구해야 한다(12). 성령의 교통을 위해 자비를 부인하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모든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바른 은사의 활용은 교회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든 그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목 영과 마음의 기능(고전14:13-15)찬405장

고린도교회의 분쟁요인이 된 방언의 은사를 사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째, 영의 기능을 인정합니다(13). 영이란 전인의 중심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아는 직관, 그와 교제하는 교통, 그리고 언약을 분별하는 영의 기능을 가집니다. 거듭난 자가 주님과 영의 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다른 지체에게도 알려져서 유익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나가려는 은사의 활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의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

음이란 생각의 기능입니다. 받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통역을 힘쓰라고 가르칩니다(14-16). 셋째, 연합을 힘쓰는 은사여야 한다(16). 영과 생각을 사용하시는 성령은 여전히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최종목적인 성령의 교통은 새 언약백성인 우리가 나아가 꼭 목표입니다. 그 일을 위해 귀한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금 깨달은 말씀(고전14:17-19)찬95장

사도는 그리스도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가 항상 중심해야 할 말씀의 깨달음 곧 성경의 지식과 지혜를 가짐을 중요시 여깁니다. 첫째, 사도는 방언 은사를 인정합니다(18). 성경의 완성으로 은사의 중단을 주장함은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제재되기 쉽습니다. 사도는 도리어 성령의 자유로운 뜻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는 은사를 교회활동의 중심에 두지는 않았습다. 둘째, 은사는 연합이 우선순위에

입니다(17). 그는 여러 은사를 환영하지만 그 은사로 성령의 연합을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합된 교회는 자율주의를 극복하고 이타주의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셋째, 말씀의 깨달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19). 성령의 길은 분명한 길을 갖는데 이것이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동참하십시오.

토 성숙한 신자(고전14:20-23)찬138장

교회에 관한 사도의 관심은 장성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장성한 지혜자가 되려면 나갈 방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지식에서 지혜가 나옵니다(20). 진리 지식을 가질 때 거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삶에 적용할 지혜가 생깁니다. 둘째, 말씀을 깨달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21). 성숙함은 언제나 성경의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관

심을 말씀중심에 두지 않는 모든 일은 세상지혜로 떨어지도록 돼있습니다. 말씀중심에 늘어난 사울왕은 안고함에서 빠져서 사람에게 걸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삼상15:23). 셋째, 설교가 들려와야 합니다(22-23). 사도가 예언을 강조함은 설교를 잘 들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자체에 순종이 포함됩니다. 그 속에 신령한 은사가 열매를 맺습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금란교회, 든든한교회, 로마한인교회, 새이덴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동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천교회, 신촌교회, 안암 제일교회, 양곡교회, 왕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Each listing includes church name, pastor name, and service times.



# New Construction

- SPACIOUS
- LUXURY
- 3 Bd. Condominium **분양**
- 마지막 남은 10채를 Special **분양** 합니다.
- \$100만불대의 가치가있는 고급 콘도미니엄을 \$70만불대에
- 주 7일 오픈 12:00 pm ~ 5:00 pm 오셔서 구경(Tour) 하세요!



ONLY 10 LEFT!



FEATURED HOME #307

3 BED • 2 BATH • 1411SQFT

**SALES PRICE**  
**\$777,750**



**436 S. VIRGIL AVENUE**  
LOS ANGELES, CA 90020  
**(323) 515-9373** [WWW.ELEMENT436.COM](http://WWW.ELEMENT436.COM)

## Element 436 Condominium 은

L.A.-Koreatown에서 가장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여, 100여개의 Doctor's Office를 걸어서 갈 수 있으며, •찜질방 •한식 •양식 등의 식당과 •전철 •버스 등의 편리한 주거 공간으로서의 안전함과 쾌적함을 느껴보세요.

Exclusively Represented By:  
KW Larchmont  
Keller Williams Realty

Dae Hur  
BRE#01489175

Christina Kim  
BRE#01431281



This is not an offer to sell, but is intended for information only. The developer reserves the right to make modifications in materials, specifications, floorplans, designs, pricing, scheduling and delivery of homes without prior notice. Buyers must be in a ratified contract by 2/28/18 in order to qualify for offer.

Each Office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